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 도전



교육연구사 이재선

연구원 전영우

행정사무관 정현호(중소기업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엮음



우리의 희망은 청년입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 맞춤형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고 현장방문(2014.04.14.)
- 학생, 교사, 학부모와 함께하는 간담회 中

요즘 분위기가 학교에서 ‘기업이나 산업체에 어떻게 하면 맞는 좋은 인재들을 키울까’ 하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기업이나 산업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좋은 인재들이 왔을 때 재교육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교육과 지원을 하면서 인재들을 얻을까’ 이런 데 서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의 틀이 고착되어 가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나가도록 뒷받침을 많이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현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까 말씀대로 기업체에는 세제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면서 교육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그 분야에서 최고 인재로 키우면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 해외에까지도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 교육과 취업한 후에도 자기가 원하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사회도 능력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하고 대우에 있어 차별을 두거나 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직무능력 표준 개발을 해서 그 직무능력에 맞는 실력을 가지게 되면 학교와 상관없이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학교, 산업체가 전부 삼위일체가 되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꿈과 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학생들 개개인의 행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라발전의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2016 정부업무보고-국민행복 편(2016.01.20.)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분야 혁신에 열과 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고졸 취업자가 늘고 있는 것을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서 질 높은 직업교육을 해서 훌륭한 고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선취학후진학, 이게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직장에 갔다가도 내가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다면 대학을 갈 수 있고, 이런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는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서도 걸림돌이 없도록 잘 챙기셨으면 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대학을 가야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하고 또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

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꿈과 끼를 기반으로 자기의 적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 하자마자 자기의 적성에 맞는 기업을 선택하고, 기업들도 원하는 인재들을 금세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커다란 하나의 화두고 목표다 할 때, 약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관계 부처들이 집중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금세 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



대통령말씀

- 04** 우리의 희망은 청년입니다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제4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 013** Part 01 재학생 부문
119 Part 02 졸업생 부문
159 Part 03 성인 부문



제4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 015** 큰 꿈은 더 큰 나를 만든다
금상 / 김소은(중문고등학교)
- 023** 한 송이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은상 / 김다인(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
- 029** 나의 열아홉 나이테
은상 / 김은찬(서울문화고등학교)
- 036** 라디오를 켜던 소녀, 별을 쏘다!
은상 / 박현영(공주마이스터고등학교)
- 044** 미생에서 완생으로 거듭나기
은상 / 조석우(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
- 052** 류미루의 파란만장한 취업 성공기
동상 / 류미루(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 060** 꼴찌, 용이 되어 나르샤
동상 / 손현정(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 068** 나를 바꾸가는 용기
동상 / 이유은(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 074** 無限挑戰 [무한도전]
동상 / 전태준(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 080** 씨름꾼, 공사 직원되다
동상 / 정택승(울산에너지고등학교)
- 087** 꿈으로 가는 지름길
동상 / 주한나(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
- 094**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다
동상 / 한성현(삼천포공업고등학교)
- 100**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특별상 / 이찬우(금오공업고등학교)
- 106** 한줌의 흙 속에 숨은 씨앗
특별상 / 전효은(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 113** 길을 잃을 때 어떻게 하나요?
특별상 / 정명훈(경북공업고등학교)



제4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졸업생 부문

- 121 넘어져도 괜찮아
금상 / 류지원(㈜바이오넷)
- 128 No pains, no gains,
은상 / 정윤태(한국국토정보공사)
- 134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
동상 / 정형욱(삼성전자)
- 139 꼴찌의 반란
특별상 / 권승현(우리은행)
- 146 열정 100℃, 38전 39기로 취업문 열다.
특별상 / 장석원(한국도로공사)
- 153 흠수저 탓만 할 순 없잖아요
특별상 / 최연경(누네안과)



제4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성인 부문

- 160 도운아, 너는 내 희망이야
금상 / 김억경(서울공업고등학교 교사)
- 165 네가 좋아하는 일, 그 길로 가렴
은상 / 조현미(서울영상고등학교 학부모)
- 173 비장의 무기 3년간의 성공 노트
동상 / 이정호(중문고등학교 취업지원관)
- 182 나의 멋진 제자를 소개합니다
특별상 / 우정호(유한공업고등학교 교사)
- 185 힘들고 서툴지만 힘찬 발걸음으로
특별상 / 이성규(경북공업고등학교 교사)

01

미래₂ 향한 힘찬 출발!

제4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큰 꿈은 더 큰 나를 만든다



부모님이 바라는 나 VS 내가 바라는 나

지금까지 저는 제가 선택한 길보다 남이 바라는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에 의견에 어떠한 부정도 없이 따르고 노력했습니다. 남의 의견을 듣고 행동한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남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저를 보면서 점점 저 자신을 잃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과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특성화고등학교가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대학을 선택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만은 남의 의견이 아닌 제가 주체가 되어서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 삶에 주체적인 행동을 한 첫 번째 시작입니다. 저는 저에 선택에 책임을 지고 싶었습니다. 아니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인문계고등학교에 입학했으면 조그만 교실에 앉아서 수업과 자율학습이 일과에 전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특성

화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행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꿈을 위한 와신상담

저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욕은 그리 오랫동안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자만이었습니다.

‘특성화고니까 대충해도 되겠지.’

안일한 생각은 학교수업을 소홀히 하게 했고 첫 시험에 충격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결과는 부모님과 갈등이 불씨가 되었고 저에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의 선택은 신념이 아니라 억지가 되어 나 자신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후회에 나날을 보내던 저는 우연히 보게 된 야구선수에 인터뷰를 보며 변화를 맞았습니다.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 길지 않은 몇 마디가 나에 일상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일상은 180°달라졌고 꿈을 위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하루에도 수없이 되뇌었던 몇 마디가 있습니다.

‘공기업 최종합격 김소은’

아직은 허망한 꿈이지만 저는 그 허망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때부터 계획을 세워 하나씩 시작해 나갔습니다.

1학년 때는 희망하는 취업처에 대한 취업정보와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생활했습니다.

첫째, 내가 입사하고 싶은 몇 개의 공기업을 선택하여 입사하려면 어떤 공부와 활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홈페이지 또는 취업한 선배를 찾아 조언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업한 선배에 조언은 더욱 저에 꿈을 견고하게 했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해답을 던져 주었습니다.

둘째, 학교에서 진행하는 자격증 대비반에 참여하여 희망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이 자격증 취득이었습니다. 필기, 실기로 이어지는 자격증 취득과정은 수많은 실패와 무기력감을 나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머릿속에서 ‘포기’라는 한 단어가 자리 잡게 되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다양한 분야에 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함입니다. 평소 시사상식이 부족했던 저에게 다양한 분야에 책들만큼 좋은 처방전은 없었습니다.

넷째, 내신 성적 관리입니다. 반 친구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 할 수 있었고 저에 꿈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 같았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저는 다양한 경험과 행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생활했습니다.

첫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캠프와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에 필요한 스킬을 배워나갔습니다. 난생처음 써보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접은 어느 하나 호락호락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캠프 참여를 통해 얻은 경험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었고 자신 있게 나에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나로 변모시

켜 주었습니다.

둘째, 교내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적응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집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해준 활동이었습니다.

셋째, 교내외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는 일입니다.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면서 저의 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수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저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되면서 저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인 과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첫째, 희망하는 공기업에 인적성 검사를 대비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대부분에 공기업이 NCS전형을 채택하여 직무 관련 직업기초능력시험으로 변화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NCS(국가직무능력표준)홈페이지를 통해서 개념을 정립하고 준비하니 다소 수월하게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필기시험에 합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에 완성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면접 준비입니다. 살아오면서 면접을 볼 기회가 드물었던 저에게 면접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부터 꾸준히 참가해온 취업캠프는 저에게 면접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3년에 과정은 저를 ‘선택에 책임을 지는 김소은’으로 만들어 주기 충분했습니다.

세상에 호락호락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3학년이 되면서 다양한 공기업에 취업처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슴없이 몇 개의 공기업에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제 선택에 대한 결과를 부모님께 빨리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호락호락 저에게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몇 번에 서류전형 불합격은 저를 점점 초조하게 하였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준 이가 바로 선생님입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너는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 한다. 그 원인을 찾는다면 분명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다.”

선생님은 몇 번에 실패로 좌절하고 있는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격려는 저에게 세상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었고 저는 ‘공기업 최종합격 김소은’이 되기 위한 한 발자국을 다시 내디뎠습니다. 만약 그때 선생님이 그런 조언을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 진학을 하여 부모님께 신뢰를 저버린 딸로 기억 되었을 것입니다.

선생님과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면서 세상에는 수많은 회사가 있지만, 그 회사에 선택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입사지원서를 내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어느 한 곳 쉽게 연락을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며 저는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은 결국 서류전형 합격이라는 영광을 저에게 선사해 주었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선생님과 저는 면접

에 합격하기 위해서 지원회사 관련 내용, 지원동기, 다른 지원자와 구별되는 자신만의 강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을 때까지 방과 후와 주말을 반납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면접 당일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원회사로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면접이라서 심장은 두근거렸고, 손과 발은 땀으로 흠뻑 젖어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면접에 참가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항상 옆에 같이 해주신 선생님이 없다는 것이 나를 더욱더 긴장하게 했고 면접장소를 가는 그 길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면접관의 질문은 저를 더욱 당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선생님과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 있게 저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합격여부는 자신할 수 없었지만 혼자만의 싸움에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당락은 중요하지 않다. 네가 그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원한 회사에서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특성화고에서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고군분투

공기업 최종합격이라는 행복도 잠시. 업무를 시작하면서 업무에서 오는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배워온 내용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생소한 법률

용어와 다양한 소송서류는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과가 나의 노력만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기에 저는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어 업무에 필요한 법률용어와 소송서류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지금은 쉽게 이렇게 몇 자로 말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견디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의 노력을 가늠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노력으로 업무를 차질 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겪고 입사한 만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해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선취업 후진학을 통해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에 입학하여 경영학사를 취득하는 것이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선입견 때문에 당연히 관내 인문계고로 진학해 대학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에 입학했고 그 선택이 목표가 되어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성화고를 선택하지 않고 인문계를 선택했다면 지금의 이 뿌듯함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고민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좋지 못한 성적에 대해서 비판하며 그런 시간 속에서 대학이라는 맹목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고민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었고 제 꿈을 위해서 하루하루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성화고인 중문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고 다시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그 선택은 지금의 선택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선취업 후진학 정책과 함께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려는 후배들이 많습니

다. 대학진학만이 후배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는 대학 진학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성공할 기회마저 놓치게 될 것입니다. 내신 성적이 낮다고 해서 패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없이 사는 인생이 패배자인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처럼 비록 지금은 미흡하고 모자라도 마지막까지 1분 1초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성공에 기회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목표를 위한 한 걸음.

그 목표가 당신에게 새로운 나날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 송이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을 때 항상 이 글귀를 바라보며 내게도 햇볕 좋은 날이 빨리 찾아오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머리 위엔 따뜻한 해가 떠올랐고 이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예쁜 꽃을 피우게 된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구름이 걷히기 까지

제 어린 시절 사이사이에선 항상 많은 먹구름이 뭉쳐있었기에 어린 시절을 날씨에 비유하자면 ‘구름 많음’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곧 재혼하셨지만 새아버지와 또 한 번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겐 8살 어린 늦둥이, 이복동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홀로 저희 삼 남매를 키우시느라 바쁜 어머니를 도와 저는 항상 늦둥이 동생을 돌보았습니다. 동생이 웅얼이할 때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줄곧 옆에서 부족한 엄마의 역할을 하다 보니 동생에게는 어머니만큼 의지할 수 있는 누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밖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

나의 모습을 지켜보며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려야지!’

구름이 많았던 어린 시절을 지나 점점 성장해 갈수록 제겐 어두웠던 어제보다, 따뜻한 오늘의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항상 재미있어하는 과목은 미술이었고 선생님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자신감이 커졌던 과목 또한 미술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인문 교과보다는 미술과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주는 학교로 진학 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담임선생님께서도 저를 믿고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응원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사립보단 공립인 학교를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과정에서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고, 이를 살려 취업할 수 있는 학교인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내신관리를 차곡차곡 해왔던 지라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제출 할 때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성동글로벌경영고등학교에 합격하셨습니다!’

그 후, 17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합격문자를 받으며 꿈에 한발 가까워지는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입학과 동시에 성적 우수학생으로 뽑혀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보상이라는 생각을 안고 뿌듯한 마음으로 고등학교에서의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꼭 졸업할 때엔 예쁜 꽃이 되어 나가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때쯤 제 머리 위 구름들도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잠간의 소나기가 나를 흔들어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취업이라는 저의 목표는 점차 뚜렷해졌습니다.

학교수업은 중학교 때와 달리 디자인과목들 위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내가 원하던 게 이거야!’

들뜬 마음으로 디자인과목과 인문과목을 병행하며 내신관리를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들뜬 마음도 잠시, 바로 걱정 of 소나기가 제게 불어 닥쳤습니다. 항상 디자인과목 위주의 수업을 하다 보니 정작 저의 목표였던 취업에는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상업과목을 배우는 친구들에 비해 부족함이 생긴 것입니다.

저의 이런 걱정을 미리 알아주시고 디자인부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방과 후 수업을 수강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산회계운용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학교는 상업 계열 학과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방과 후에 전산회계운용사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장 1년이라는 시간을 전산회계운용사2급 자격증 공부에 투자하였고 조금 느리지만, 필기와 실기를 한 번에 합격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인아! 정말 잘했다!”

상업계열 학생들에 비해 느리고 더디었지만, 꾸준히 열심히 하는 저의 모습을 좋게 봐주셨던 선생님들께서도 저의 합격소식에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잠깐 왔다 그치는 소나기처럼 제게 있었던 취업에 대한 걱정들은 금방 사라졌고 오히려 전산회계운용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며 끝까지 해내고 마는 의지와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지와 자신감을 얻으며 보람됐던 1학년 생활을 마치고 2학년이 되었을 때, 제게 ‘취업’이라는 목표는 점점 뚜렷해졌고 정확히 어떤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지에 대해 정해야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때쯤 저희 동생에게 명절이나 연말이 되면 항상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그 택배는 저희 지역복지관과 연계된 삼성화재의 후원선물이었습니다. 택배 안에는 아기자기한 선물들과 삼성화재에 다니시는 직원분들이 손수 써주신 손편지가 함께 담겨 있었고 그 정성어린 손편지는 매번 저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마음을 지닌 분들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과 동시에 취업하고 싶은 꿈의 기업을 삼성화재로 정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꼭 삼성화재에 입사해 저희 동생을 후원해주셨던 직원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삼성화재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는 직원이 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

삼성 상반기 채용이 시작되기 전, 삼성화재입사를 위한 만만의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자격증, 자기소개서, SSAT등 다양한 방과 후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 다양한 방과 후 수업들을 꾸준히 수강하다 보니 3학년이 시작할 때쯤 자기소개서는 거의 완성 되었고 SSAT 유형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완료! 이제 실전이다!’

뜨거운 열정으로 고등학교 3학년을 맞이했습니다.

3학년이 된 후, 삼성 상반기 고졸채용이 뜨길 기다리는 동안 저희 반 게시판에 ‘삼성 꿈 장학생’ 모집 공고가 붙여졌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함께 삼성 꿈 장학생에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지 권유해주셨고 기쁜 마음으로 삼성 꿈 장학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함께 멘토, 멘티가 되어 앞으로의 꿈이 담긴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하였고 담임선생님과 저의 열정을 알아주셨는지 삼성 꿈 장학생에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삼성화재의

후원과 삼성 꿈 장학생 선발로 한 층 더 삼성과의 인연을 쌓아가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삼성 상반기 고졸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자기소개서를 최종으로 수정한 후, 1차 서류심사에 제출했습니다.

“합격! 합격!”

제출 후 저와 함께 담임선생님께서도 두 손 모아 합격을 외치며 1차 결과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몇 주 후, 결과가 공지됐다는 문자를 받고 삼성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해 확인해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색깔이 없는 4개의 퍼즐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을 클릭했고 예쁜 색깔이 채워졌습니다. 바로, 1차 합격이 된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도 잠시 다음은 SSAT, 인적성 검사였습니다. 다행히 SSAT 방과 후를 수강하며 대비했고 문제집이 너털해질 정도로 풀고 또 풀었기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시험 당일, 어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고사장으로 들어갔고 자신감은 넘쳤지만 역시나 처음 보는 인적성 검사에 무척 떨리고 긴장했습니다. 덜덜 떠는 손을 붙잡으며 준비해왔던 실력을 맘껏 뽐냈습니다. 실력을 맘껏 뽐냈던 만큼 두 번째 퍼즐 조각도 예쁜 색깔로 채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조각은 2조각! 면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업담당 선생님과 함께 2주 동안 밤늦게 까지 남아가며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힘이 들 때엔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며 이겨냈습니다.

‘이건 모두 내가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일 뿐! 이겨내자!’

면접 당일, 인적성 검사 때 보다 백배는 더 떨렸던 것 같습니다. 긴장을

가득 안고 면접을 보러 들어갔고 면접관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콧코 찔렀습니다.

“삼성화재에 지원한 동기가 뭐죠?”

면접관의 질문을 받고 삼성화재 후원선물 속 삼성화재 직원들의 손편지로 인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직원이 많은 회사라고 느껴 지원하게 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면접관의 물음에 정말 삼성화재에 입사하고 싶다는 진심을 듬뿍 담아 답변했습니다. 면접관들께서도 제 진심을 알아봐 주셨는지 날카롭던 표정들이 모두 따뜻하게 변했고 기분 좋게 면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면접인 만큼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퍼즐 조각이 모두 채워져 나갔습니다.

항상 구름이 가득해 어두웠던 제가 예쁜 꽃이 가득한 꽃밭으로 바뀐 것은 꾸준한 준비와 진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며 정성을 기울이면 예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꾸준한 준비와 정성이 모이면 꿈을 꼭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준비하여 이 수기를 읽는 모든 학생들이 예쁜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진심으로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할 것 입니다!



나의 열아홉 나이트



16세, 중학교 3학년 : 꿈을 접고 목표를 가지다.

중3까지 저의 꿈은 발명가였습니다. 물건의 작동원리에 호기심이 많았고,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살피 개선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도면으로 설계도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의 아이디어로 창업하여 대표이사 자리에 앉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이른 나이에 삶의 목표를 가졌다는 것에 뿌듯함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가 되신 아버지와 남은 빚을 갚기 위해 주말도 반납하시고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의 모습과 중학생 때, 8평짜리 임대아파트가 창피해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못했던 상황이 불안정한 수입의 발명가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막연한 목표로 바뀌어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는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열여섯의 나이트가 나를 돌렸을 때 다음 세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첫째, 발명가라는 꿈을 일단은 접자.

둘째, 하루빨리 부모님에게 재정적 도움을 드려야겠다.

셋째, 경영에 관심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하자

17세, 고등학교 1학년 : 목표를 위해 달리다.

입학 후, 발명가라는 꿈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이 항상 동기부여가 되어 끈질기게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1학기부터 2, 3학년 선배들처럼 자격증과 내신준비를 철저히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출석에 가장 큰 신경을 썼습니다.

학교선배님들께 출석은 대학을 갈 때나 취업을 할 때나 어디에서든지 사람의 성실성을 증명해주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각하지 않기 위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택시비를 지갑에 꼭 넣어놓고 다녔고 손목시계를 5분 일찍 맞춰서 어느 자리에든 지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5분 일찍 맞춰 놓은 손목시계는 기업은행 최종면접 때 임원님께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돈을 아끼며 스스로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찾았던 컴퓨터학원에 저 역시 찾아가 회계자격증과 컴퓨터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때 방문학습지 학원에 다닌 경험 이외에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는 저는 월 30만원에 가까운 학원비를 보고 차마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러웠어요.

한동안 친구 아버지 공장에서 박스조립 알바를 하면서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 교과서를 편 상태로 그대로 잠이 들 만큼 피곤해져서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주위 친구들과의 상담 끝에 인터넷강의를 보며 스스로 자격증을 취득할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지출이 필요한 자격증 수업료

를 약 80%를 줄여 7만 원에 회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친구와 인터넷 강의비를 분담해 6만 원에 수업을 듣고 스스로 공부하여 펀드투자상담사라는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셋째로, 취미생활을 하며 취업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저의 취미는 통기타연주와 산악자전거 타기입니다. 목표가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스스로 부족함을 느낄 때 등의 상황에 놓일 때마다 통기타를 꺼내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거나 자전거를 타고 동네 뒷산에 찾아가 자전거를 탔습니다. 취미활동을 하면 개운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나 면접전형 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힘들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쉽게 답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특히 산악자전거를 타며 도전과 열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맞이하고 자격증 준비 내신준비를 꾸준히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열일곱의 나이테를 돌렸을 때 다음 네 가지가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첫째, 생활기록부를 끊임없이 신경 써야 한다.

둘째, 알뜰하게 취업준비를 하자.

셋째, 돈을 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넷째, 스트레스 해소는 취미가 제격이다.

18세, 고등학교 2학년 : 경험을 통해 배우다.

봄방학이 끝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출원한 무전력 칫솔건조기 실용신안증의 심사결과 통과되어 출원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년을 기다려 받았기에 생애 가장 기쁜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쁘면서도 목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허청에서 인정해주었다는

사실, 저의 아이디어가 다시 발명가의 꿈을 가지라고 유혹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후로 건조기를 실현화하고자 실용신안증으로 사업주와 라이선스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받는 것을 목표로 특허매매거래 사이트에 무전력 칫솔건조기를 게시했고, 제 아이디어가 필요할 만한 소기업을 골라 메일을 보냈습니다.

점점 더 아이디어 사업화에 비중을 크게 두게 되다 보니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경영과 3등에서 8등으로 성적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떨어진 성적표를 보고 한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둘 다 놓칠 것 같다. 내신공부를 먼저 하고 자투리 시간에 휴대전화기 메모장에 불편했던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도면을 그리자.’

그렇게 해서 2학기에는 경영과 2등으로 한 등수 더 오르는 쾌차를 얻었습니다. 이정연 담임선생님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너는 성적과 자격증은 훌륭한데,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때 자신감이 없어 보여.”

저 역시 느꼈던 부분이었기에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안보다 학교 밖을 바라보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을 연구하는 ‘팀화이트’라는 대외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날 보니 약 600명의 가까운 동아리 부원들 사이에서 고등학생은 저를 포함해서 채 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양대, 서울대, 한국외대 등 명문대에 재학하는 형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회공헌기획회의를 하고 보고서에 저의 아이디어는 반영되지 못했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

고 간단히 맥주 한 캔 하자는 말에 저는 귀가해야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더욱 자신감이 하락하였고 점차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아니야. 앞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지금의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막내의 위치에서 다시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우선 커피 심부름을 하였고 회의 시작 전에 테이블을 말끔히 청소하고 서류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제 아이디어를 먼저 내세우지 않고 선배들의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으로 서포터를 하였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점차 선배님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마침내 팀이 저라는 톱니바퀴에 끼워져서 작동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의 아이디어인 <삶의 현장에서 지친 분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결과물을 제출하게 되었고 좋은 성과를 거두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으로 좌우명 ‘끝을 몰라도 끝까지 하자’를 새기게 되었습니다.

열여덟의 나이에 다다랐을 때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째,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을 병행할 수 있다.

둘째, 자신감을 가지는 방법을 찾자.

셋째, 끝을 몰라도 끝까지 노력하자.

19세, 고등학교 3학년 : 비바람 속에 꽃을 피우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 금융기관에 입사를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3월부터 실전으로 입사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지원한 회사는 국민은행인데 2주에 걸쳐 최선을 다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드디어 서류 결과 발표 날. 떨리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제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회색 네모 박스에 적힌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합격 첫 지원에 첫 불합격이라고?’

좋은 성적과 자격증을 가졌다고 생각했었는데 서류에서조차 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쉽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취업이 쉽지만은 않겠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좌절이 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 내 취업지원센터에서 7교시 내내 컴퓨터 의자에 앉아 다음 취업을 대비했습니다. 자기소개서, 필기전형 준비와 입사지원까지 힘든 날을 보내고 4월 29일 KDB산업은행에 처음으로 서류에 합격했습니다. 5월 20일 기업은행 서류전형과 산업은행 필기전형에도 합격하였고 이후 산업은행 1차 면접과 기업은행 1차 면접에 모두 통과하여 2차 면접을 남겨두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행권 두 곳을 동시에 1차 합격하면서 취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앞선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산업은행 최종면접 2대1에 경쟁률에서 선택받지 못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큰 목소리로 말할 걸 그랬나? 장점을 간단하게 설명할 걸.’

여러 후회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도 기운이 없어 보인다.’

힘든 시기에 취업지원관 선생님께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긴 시간의 상담을 하며 산업은행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기업은행에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드디어 기업 은행의 면접이 다가왔습니다.

“통기타를 잘 친다는데 친구는 어떤 노래를 주로 치나?”

“네, 남진의 동지를 아버지께 불러 드리곤 합니다. 가능하다면 여기서 불러보겠습니다!”

기업은행 임원 면접에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답하고 노래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너의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남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조차 떨려 했던 제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는 사실에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내 2차 면접 발표 날 8월 3일 기업은행 인사부 과장님께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합격 문자를 봤을 때 그 감정, 떨림, 순간이 지금도 생각나고 이 말을 할 때면 항상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열아홉의 나이테는 나에게 이런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첫째,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진다.

둘째,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후회하지 말자

셋째, 나는 당당한 사람이다.

지금 저는 IBK기업은행 특성화고 합격자로 합숙연수를 기다리면서 학교에 남아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변리사님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아이디어를 출원하며 저의 길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울해질 일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힘든 상황을 몇 줄의 나이테를 더 가지고 난 뒤 돌이켜보면 더욱 깊이 나이테를 파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곳은 날 뒤에는 분명히 우리의 나이테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를 뜯던 소녀, 별을 쏘다!



2013년 3월 어느 봄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날씨는 꽃샘추위로 쌀쌀했지만 가슴만은 기대와 희망으로 따스해져 있었습니다. 입학과 동시에 품은 취업이라는 꿈, 라디오를 뜯어대던 소녀가 삼성이라는 별에 이르기까지의 발걸음을 지금부터 펼쳐보려 합니다.

고장이 난 라디오를 뜯다

초등학교 시절,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티브이를 보고 컴퓨터를 할 때 저는 조금 다르게 라디오를 즐겨 들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가끔 부모님께서 학교에 데려다주실 때 들었던 아침 라디오, 5교시가 끝날 즈음 들려오던 〈두 시 탈출 컬투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좋아하는 가수가 진행하던 라디오를 들으면서 항상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라디오를 들으며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라디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는 끊기고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툭툭 쳐보기도 하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보기도 했지만 이미 먹통이 된 라디오는 다시 목

소리를 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일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

아쉬운 마음에 다음날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라디오를 이리저리 보시더니 저에게 드라이버를 쥐여 주시곤 직접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현영이가 한번 열어볼래?”

원래 호기심이 많은 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나사를 이리저리 돌려보고 내부를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걸까?’

여러 전자부품들이 자리를 맞추어 놓여있었고, 저는 미숙한 나머지 힘으로 분해하려다 결국 라디오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새로운 라디오를 사주셨고, 나중에는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라는 말씀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라디오는 고장이 나버려 버리게 되었지만, 그것과는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꿈이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사춘기를 조금 심하게 겪었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들과 모두 떨어지게 되면서 다들 낯설었고, 공부와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몰래 학교를 빠져나가거나 무단결석을 하는 등 무의미한 학교생활을 보내다 보니, 좋아하던 과학과 수학 점수는 낙엽처럼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방을 절대 바꾸지 마라.’

교관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친한 친구들이 있는 방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걸리지는 않았지만, 사건은 그 다음 주 등교 일에 일어났습니다. 교실 앞에는 경찰분들께서 와 계셨고 담임선생님과 반의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아서 친구에게 무슨 일

인지 몰았습니다. 원래 제가 바꾸기 전에 있었던 방에는 장애우 친구가 한 명 있었고, 나머지는 소위 노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장난이 짓긋긴 했지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기에 안심하고 방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밤마다 장애우 친구를 성희롱을 했고, 그 친구는 수련회가 끝나자 담당 선생님께 도움을 통해 저희 반 친구들을 상대로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우 친구를 제외한 저희 반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실에서 취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방을 바꾸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꿈에도 알지 못했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방에서 성희롱을 주도하던 그 친구들은 각자 학교에서 큰 징계를 받았고 장애우 친구는 전학을 갔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끝날 즈음 화살은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다리 없는 소문이 가장 무서운 법이라고, 제가 성희롱을 주도했다고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나 급식실을 지날 때마다 모르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일쑤였고, 대놓고 욕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닌 저 친구들이 한 일이에요.”

해명과 동시에 억울함을 표하기도 했지만, 이미 퍼져버린 소문은 건잡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떨어지는 성적에 부모님은 저에게 화만 내셨고, 고민과 스트레스에 둘러싸인 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동생이 일찍 발견해 신고해준 덕에,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너를 더 키우게 된다면 독이 될 것 같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던 저를 본 부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동갑내기 사촌이 있는 청양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촌의 도움으로 새로운 학교에서 빠르게 적응 할 수 있었고,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한 결과 시험에서 내신 20%대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밤이 있으면 아침이 있듯, 제 중학교 시절의 밤은 그렇게 지나고 밝은 아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중학교의 3년이 지나고 드디어 고등학교 원서접수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특목고인 마이스티고와 인문계 고등학교, 부모님과 담임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상담도 받고, 혼자만의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장이 난 라디오와 함께 아버지의 일하시는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유통업체에서 일하시던 아버지는 항상 아침에 출근을 하셔서 저녁에 들어오시곤 하셨습니다. 한번은 아버지의 작업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시고 항상 허리를 숙였다 폈다를 반복하시며 일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의 희망인 제가, 부모님의 짐이 되기는 싫었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인문계에서 대학까지, 적어도 7년이라는 시간을 아버지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 손으로 라디오를 만들어 보겠다면 작은 꿈도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저를 마이스티고로 이끌었습니다.

원서접수 시작 당일.

쉽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써보는 자기소개서는 내용이 미흡했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면서 작년에 입학했던 선배님들의 자기소개서를 보여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쓰는 방식을 파악하고 차근차근 써내려 가보니, 제 첫 자기소개서가 완성 되었습니다. 1차 전형

에 합격을 하고 이 기세를 몰아가 최종 면접도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당일, 교문 앞에는 현수막이 붙어있었습니다.

‘삼성 공채 합격을 축하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눈은 크게 떠지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의 두 번째 목표가 생겨난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이라는 별 따기 프로젝트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중학교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야말로 ‘경쟁’이 아닌 ‘전쟁’이었습니다. 공과 계열의 학교이다 보니 처음 보는 낯선 단어들 이 너무 많았고, 수업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성적과 내신관리도 중요하지만, 남들과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선배님들의 말이었습니다. 입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아리를 결정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어 위주의 토익반, 수학 심화반, 문예 창작반 등 학업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 제 관심을 사로잡은 동아리는 바로 밴드동아리였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추억을 만들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타 동아 리와는 다르게 오디션을 봐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어릴 적 치던 피아노 를 다시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바꾸어 치고, 점심 저녁마다 연 습을 한 결과 ‘퍼시피아’라는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고교 인생의 중요한 획을 그어준 동아리입니다.

하지만 점심, 저녁, 방과 후에 연습을 하니 남들보다 공부할 시간이 확실히 적었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쉬는 시간마다 수업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보고 기숙사 점호가 끝난 뒤는 학습실에서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이러

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어느새 자기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아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1학년 첫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자격증 또한 하나둘, 순조롭게 취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동아리에서는 교내 활동만이 아닌 지역축제, 봉사활동 공연 등을 통해 여러 사람 앞에서도 떨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학교생활을 하는 도중에도, 저는 늘 저의 목표를 생각했습니다.

합격하신 선배님들께 예상 질문이나 면접 방식 등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고, 학업에도 더욱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삼성 공채의 원서 접수일이 다가오고 저는 더욱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접수와 준비 기간이 방학 중이어서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 저도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때, 어떤 만화책에서 주인공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꿈은 도망가지 않아, 도망가는 것은 언제나 너 자신이야.’

입학 때부터 품어왔던 꿈을 놓칠세라 다시 꼭 붙잡아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난관이 닥쳐왔습니다. ‘직무능력평가’라는 시험을 보아야 하는데 준비를 할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예전부터 준비했는지 술술 책을 풀어 나가는데 저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자 함께 공채를 준비하던 친구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풀면 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

친구들의 격려와 따스한 한 마디 한 마디가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에 보답하고자 더욱더 열심히 공부한 결과, 1차 전형이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면접 방식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PPT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 발표를 토대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선 주어진 주제에 맞춰 차근차근 발표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면접 당일이 되자 선생님께서 청심환을 줘여 주면서 긴장이 되면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먹을까 생각을 했지만, 긴장감 없이 면접을 보면 오히려 실수하고 집중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품 안에만 지니고 있었습니다.

면접 차례가 다가오고 드디어 문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그 순간 안내를 해주시는 분께서 긴장을 풀어주시고자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으신 편이세요?”

“네,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모든 잘 되실 거예요.”

그러자 여러 걱정들이 봄날 살얼음 녹듯 사르르 녹기 시작했고, 약간의 긴장감과 두근거림을 안은 채 제 꿈의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실수 없이 발표를 마치고 면접 또한 차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삼성전자 마이스터 4기 공채’에 당당히 합격 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교정에 첫발을 내디딘 그 꿈결 같은 기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1년, 2014년 3월의 봄날에 교문에 붙은 현수막.

‘삼성전자 박현영, ***, ***, *** 합격’

현수막의 글귀가, 제 인생 최고의 성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며, 그동

안 저를 믿고 도와주신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기다려주신 부모님께 마음속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삼성 공채에 합격한 뒤로 총 3번의 입사 전 교육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의 마이스터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과 평가를 반복해 가는 동안, 저는 정말 저 자신이 아직 우물 안의 개구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물 밖의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개구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꿈을 찾아 세우려 합니다.

라디오를 만들어 보겠다면 첫 번째 꿈, 삼성에 입사하겠다는 두 번째 꿈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었듯 세 번째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우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디뎌 나아가다 보면 제 꿈이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저 멀게만 느껴지던 제 꿈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보람과 쾌감을 느낍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목표를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다 보면 그 길의 끝자락에는 성공이라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생에서 완생으로 거듭나기



“삼성맨이라는 완제품이 되기까지 저의 18년간의 공정 과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삼성전자 면접 때 했던 말입니다. 저는 산으로 둘러싸인 농촌 지역 충남 금산군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니 시골 촌놈인 저에게 삼성은 말 그대로 꿈의 직장과 같은 회사였습니다. 지금부터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닌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에 입사하기까지 저의 학교생활을 풀어보려 합니다.

조석우, 개천에서 용나다

부모님께서 4남매를 키우시다 보니 저는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성공과 권위보다는 기본적인 것을 훈육하셨습니다. 제 이름에 ‘도율 祐’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동네에서 사고를 자주 치는 문제아로 유명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때는 학교에 적응하기가 힘들어 무단결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부모님께 준비물을 산다며 받은 돈으로 군것질을 하고, 오락실을 자주

들락날락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까지 데려다 주실 때는 30분도 못 앉아 있고 학교를 나가곤 해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총 100일에 가까운 무단 결석을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관심으로 차츰 학교에 적응해 나갔지만 부족한 점이 많아 장애우들이 공부하는 ‘도움학습반’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앞날이 참 걱정된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고 그럴수록 저는 점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용기를 내어 3학년부터는 일반학급에서 다니게 해달라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성적이 평균 70점을 넘으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고 예습과 복습을 하며 평균 30점대에서 거의 80점 가까운 점수까지 올려 3학년부터 일반학급에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역경을 극복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초가 부족한 탓에 고학년이 될수록 성적은 점점 중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내려갔습니다.

중학교 때의 성적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반박하였습니다. 1학년 초에는 하위 10% 미만의 성적으로 매일같이 방과 후에 보충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전교생의 성적을 교실 앞에 붙여 놓았기 때문에 저는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초등학교 때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평균 몇 점을 맞을 것이며, 몇 등 안에 들 것이다.”

목표를 세우며 열심히 노력하니 1학년 말에는 전교 30등 안에 들게 되었

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사춘기가 시작되며 친구들과 싸움을 자주 하고 수업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가는 등 방황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고입이 가까워지면서 정신을 차린 저는 다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전교 상위 15% 안에 들며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인정받는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집 옆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었지만, 부모님께서는 당연히 일반고에 진학하여 대학가는 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고에 진학한 후에 공과대학에서 제가 좋아하던 자동차를 전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소개로 자동차 분야 마이스터고인 연무대기계공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마이스터고의 특성상 취업률은 높지만 대학 진학을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주변의 만류와 ‘공돌이’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뒤로하고 제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위해 연무대기계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 때문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진학을 망설였던 것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자동차를 배우고 기술을 익히기 위해 왔지만 원하는 대로 풀리고 잘할 수 있을까?”

우려와 달리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선택한 것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9시 반까지 전공 수업을 듣고, 매주 2번씩 토익 수업을 들으며 회사에 입사하기 위한 역량을 많이 기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전공 수업과 실습을 하면서 설비를 고치고 운용하는 것이 제 적성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삼성전자 ‘설비엔지니어’를 꿈꿨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한국품질명장협회와 협약을 맺어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점을 명장님들께 여쭙 볼 수 있었고 TPM 분임조 활동과 공정개선 활동을 하며 설비엔지니어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IT 관련 자격증이나 영어,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다 가지고 있다는 태권도 자격증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마이스터고에서 전문적으로 전공을 배운 결과 1학년 때 ‘컴퓨터 응용밀링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취득한 첫 자격증인 만큼 무엇보다 기뻐고 선생님들께서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고1 때는 내신 관리에 치중한 탓에 다른 친구들보다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뒤쳐져서 기계설계/CAD 기능영재반에 들어가 CAD를 연습하고 또 각종 기계부품 구조들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한 해 동안 5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2학년 2학기 때 진행했던 전공 팀 프로젝트 활동에서 사출금형으로 빨래집게를 만들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공인 자동차 금형과 관련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한 결과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 금형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R=VD,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던 저에게 하나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취업’때문이었습니다. 2학년 말부터 주변 친구들이 삼성전자, 한국수력원자력 등 남부럽지 않은 회사에 하나둘씩 합격했습니다. 3학년이 되어 졸업의 문턱에 가까워졌지만 내신, 자격증, 프로젝트 등으로 바빴던 저는 취업 준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따로 공채 준비반을 운영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만 고생하자.’

마음을 다잡으며 열심히 삼성전자를 목표로 준비했습니다. 다른 회사 입사 준비를 하지 않고 오로지 삼성전자만을 준비하다 보니 우려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채용공고가 안 나오면 어쩌니?”

슬며시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교실 책꽂이에 있던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 성공수기에서 사례들을 읽으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학교, 기숙사 책상에 ‘삼성맨’이라고 적어놓고 삼성직무적성검사 책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드디어 5월 초 삼성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5월 31일에 시행되는 삼성직무적성검사 시험이 있기 전에는 ‘융접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자격증보다 취업이 먼저라고 하셨지만 저는 학교에서는 자격증 준비를 하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기숙사에서 틈틈이 입사 준비를 하느라 하루에 5시간만 자며 생활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귀가하는 날에도 버스 안이나 집에서도 열심히 삼성직무적성검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저의 노력 덕분에 자격증 시험에서도 합격 통보를 받았고 삼성전자 1차 서류전형에도 통과하여 저의 기쁨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5월 31일, 2차 전형인 삼성직무적성검사는 문제집을 7권이나 풀었고 시험 난이도도 쉽게 출제되어 자신감을 느끼며 보았습니다. 2주 뒤,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삼성직무적성검사 합격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다음 전형인 면접에 대한 걱정이 더 컸습니다.

‘면접 준비 기간이 1주일이 조금 넘게 남았네. 면접 다음 날은 생산자동화 기능사 시험이 있잖아. 3회 검정시험도 준비해야 하고!’

할 일은 많고 처음 보는 면접이라 긴장감이 가득 차서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취업하신 선배님께 연락을 드렸고 선배님의 조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졸로서 사회에 나가는 특성화, 마이스터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님은 회사 일로 바쁘실 텐데도 학교로 찾아와 회사를 소개해주시고 면접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면접 기본 요령을 숙지한 후 학교 선생님들을 찾아가 실제 면접처럼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논산시청에 있는 일자리 지원센터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참 무섭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합격이라는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면접 날.

집합 장소로 가는 길에서는 너무나 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잘 보라는 친구들과 선생님, 부모님의 문자를 보고 기분 좋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하니 수많은 경쟁자가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은 인성 면접과 기술 면접 두 가지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인성 면접을 보았습니다. 우리 학교 교복에는 견장이 부착되어 있다 보니 면접관님들이 신기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고졸로서 사회에 나가기를 선택한 이유와 각오에 대해 말해주세요.”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우고 싶어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고 고졸로서 남들보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가진 기술을 활용하여 삼성전자 조모현 명장님처럼 명장이 되고 싶어요.”

면접관님의 질문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지는 기술 면접 또한 제가 가장 잘하는 용접과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주 내용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주 후 토요일 아침, 같이 면접을 본 친구들이 결과가 나왔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며 몸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조석우님은 종합면접에 합격하였습니다.”

그 순간 소리를 지르며 거실로 나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형과 누나들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효도를 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삶은 꿈을 꾸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얼마 전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같은 교육과정을 배워온 친구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는 것을 보니 느낌이 새롭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티를 벗고 각자가 선택한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보면 딱히 이렇다 할 꿈도 없이 사회적 분위기와 부모님에게 등 떠밀려 대학에 진학하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도 운동도 음악도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큼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

꿈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마이스터고 진학선택은 저를 바꿔 주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와서는 자격증 10개를 취득했고, 학급 반장으로서 많은 대외 활동을 하였으며, 학업 우수상이나, 글짓기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이 자랑스롭습니다. 취업이 확정된 지금은 제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었던 꿈인 ‘자동차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벅차지만 졸업하기 전,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던 미생의 저에게 꿈을 심어 준 곳이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요즘은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잘되어 있고 <일 학습 병행제>, <재직자 특별전형>이 있어 고졸 취업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배울 기회도 많습니다. 제가 마이스터고에 진학하여 ‘삼성전자 입사’라는 꿈을 이루어 낸 것처럼 후배님들도 현명하게 판단하여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후배님들은 뚜렷한 목적 없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미생에서 완생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류미루의 파란만장한 취업 성공기



최근 대학 진학률은 80%를 웃도는 반면 청년 취업률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많은 대학생들의 생활이 학자금 대출로 버거워지고 취업준비생들은 취업난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틈새시장을 노렸다. 바로 ‘고졸 취업’이었다. 이 선택에서 나는 후회가 없고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꺾이지 않게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을 선택하겠지만, 분명 선택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 길을 확신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파란만장했던 나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어두컴컴했던 과거를 넘어

요즘 인터넷상에서 잘 사는 부모나 집안에서 태어나 부유한 삶을 보내는 사람을 금수저, 은수저라고 부른다. 나도 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수저였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정반대였다. 우리 아버지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조선소에서 인사부 과장으로 근무하셨다.

당시에는 남부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가족과 도란도란 화목하게 생활했

다. 그러나 우리에게 행복한 순간은 오래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해고로 우리 집 살림은 점차 힘들어져만 갔다. 그 뒤로도 아버지의 사업은 계속 부도만 났고, 억 소리 나는 빚과 함께 우리는 이곳저곳을 옮겨가며 생활했다. 하지만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난함이 아니라 바로 가족 간의 불화였다. 우리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 장애를 앓으셨다. 아버지의 증세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졌고 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맞서는 어머니의 다툼은 끝날 틈이 없었다.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꺾이지 않게 한 사람은 나에겐 7살 차이가 나는 언니였다. 당시 언니의 나이는 한창 사춘기일 15살, 나는 8살 어린 아이였다. 언니는 부모님의 싸움으로 혹여나 내가 다칠까 봐 방으로 나를 숨겼고 어린 나이에도 당찬 기지와 용기로 부모님의 싸움을 말렸다.

언니는 나의 보디가드이자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였다. 그런 언니에게는 꿈이 있었다. 바로 뮤지컬 배우였다. 언니는 가정환경과 경제적인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꺾이지 않고 꿈을 지켜나가려고 했다. 나는 언니의 굳건한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닮고 싶었다. 그러나 언니는 학자금 대출이라는 높은 벽 앞에 서게 되었고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내 나이 13살, 충격 그 자체였다. 언니의 현재가 곧 나의 미래가 될 거란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했다. 언니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평범하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는 것이 순전한 꿈이라면 꿈이었다. 하지만 이 길로 간다면 진정한 나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학자금밖에 없을 거라는 불안한 확신이 들었다.

그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진로’였다. 앞으로 나의 삶의 주제가

되고 생계수단이 될 수 있는 계획 말이다. 이후, 나는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담임선생님과 상담했다. 그 결과, 한 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수준 높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학교, 내가 현재 재학 중인 광주 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했다. 이 학교의 진학은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취업을 향한 3년간의 마라톤

광주자동화설비공고에서는 사람의 손길 없이 모든 설비가 능률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을 배운다. 이 기술에는 전기, 전자, 통신, 기계 등 다양한 전공이 접목되어 있어서 더욱 폭넓은 기술력을 갖추기에 충분했다. 또한, 일반 특성화고보다 더욱 다양하고 수준 있는 실습 장비들이 갖춰져 있어서 현장실무와 가깝게 교육받을 수 있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 ‘아침 운동’을 빼놓고 말한다면 아쉬울 정도다. 전교생 240명 모두가 기숙사에서 한 주의 대부분을 보내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 매일 아침 6시부터 태권도를 한다. 나도 지금까지 꾸준히 운동을 해왔고 나의 체력과 마음가짐은 전보다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그러던 중 학생이라면 부딪혀야만 하는 관문이 나에게도 닥쳤다. 바로 ‘성적 관리’였다. 우리 학교의 경우 한 학년의 수가 80명이기 때문에 석차가 바뀌는 것에 타격이 컸다. 그뿐만 아니라 성적이 높을수록 취업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성적에 상당히 예민한 편이었다. 난 그 예민한 사람들 중 한사람이었다.

중학생 때부터 설계해온 나의 길에 있어서 고교 성적은 중요했다. 하지만 처음 배우는 전공과목은 확실히 쉽지만은 않았다. 인정하기는 싫었지만,

남학생들보다 수업에 따라가는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스스로 알고 있었기에 나의 부족함을 노력의 시간으로 채워가기 시작했다. 우선 쉬는 시간, 점심시간, 취침시간 등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 하루 동안 배운 내용을 무한 반복으로 소리 내어 읽고 외웠다.

그렇게 해서도 이해가 안 가거나 외워지지 않는 내용은 메모지에 적어 책상이나 침대에 붙여두었다. 공부하다가 잠이 올 때는 손가락으로 손등을 꼬집거나 물파스를 눈 아래에 바르는 등 잠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도 공부 적당히 하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그 결과, 나는 당당히 전교 1등의 성적을 거머쥔 수 있었다. 자타공인의 인간 승리였다. 그리고 한 번의 성공에 도취하지 않으려 애쓰며 지난 3년간 꾸준히 공부해왔고 현재까지도 1등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 기세를 이어 자격증 8개를 취득했고 학교에서 받은 상만 해도 12개였다.

그러다 어느덧 ‘취업’이란 최종관문을 넘어서야 하는 3학년이 되었다. 1학년과 2학년 때가 기초를 다지고 스펙을 쌓는 시기였다면 3학년은 다 챙겨진 배낭을 메고 취업의 산을 등반해야 하는 시기다. 3월 초부터 수십 곳에서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다. 하지만 나는 당시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마음이 여유로운 편이었다.

“류미루, 너는 어떻게든 좋은 회사에 갈 것이다.”

주변에서 이런 라는 말을 들어왔고, 나 자신 또한 좋은 성적, 많은 자격증에만 의지한 상태였다. 그래서 어떻게든 취업이 될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긴장이 풀어져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기업에서 이런 나의 나태함을 꿰뚫어보았는지 1학기에 지

원했던 열 곳의 회사에서 결국 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다. 시험을 못 본 것도, 면접에서 실수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그제야 알게 되었다. 나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KBS 스카우트에서 별을 쏘다

2학기의 새로운 계절을 맞이했고 기회를 노리던 나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쳤다. KBS의 TV프로그램 ‘스카우트’에서 꿈의 기업에 입사할 인재를 우리 학교에 한해서 선발한다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인재를 찾는 회사는 내가 꼭 가고 싶은 회사 TOP3 안에 드는 ‘한전KPS’였다.

유명한 명언이나 속담에서 흔히들 말하는 ‘기회’가 나에게 온 것이다. 나는 바로 스카우트 지원서를 작성했다. 지원서에는 회사 지원동기, 각오나 다짐 등 다양한 항목이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그럴듯한 내용을 지어가며 힘들게 글을 써내려갔을 텐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열정과 간절함, 그리고 오래전부터 열망했던 회사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작성했다.

실제로 작곡가들도 ‘진정한 명곡은 15분이면 완성된다.’라고 말했듯이 내가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 2시간 채도 걸리지 않았다. 시간이 짧다고 해서 절대 대충 쓴 것은 아니었다. 나의 진정성이 담기면서 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서 풀어썼다. 여담이지만 아마 스카우트 지원서가 내가 지금까지 써온 지원서 중 단언컨대 최고일 것이다.

지원서를 제출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KBS 촬영 팀에서 면접을 보기 위해 우리 학교에 방문했다. 스카우트 면접은 기존에 회사에서 보는 면접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회사에서 보는 면접은 자기소개하고 면접관이 제

시하는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라면 스카우트 면접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끼를 보여주고 무대에서 연출할 콘셉트나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나는 촬영감독과 작가 3명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댄스동아리의 팀장으로서 멋진 춤까지 선보였다. 네 분 모두 흡족하시고 좋게 생각해주신 덕분에 예선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었다.

10월 5일, 드디어 본 촬영이 시작되었다. 1차 ‘나를 뽑아줘’는 전교생과 선생님들이 모여 있는 강당 무대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강렬한 포부를 보여주는 단계이다.

특히, 한전KPS 사장님과 인사팀장님,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야 한다. 당시 나는 감기로 인해 지쳐 있는 상태였음에도 심장은 터지다 못해 몸에서 뚫고 나올 지경이었다.

내 앞 차례에서 후배들과 친구들이 멋진 공연들을 보여주어 분위기는 한껏 달궈진 상태에서 드디어 내 이름이 불렸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는 무대 위에 당당히 섰다. 언제 떨어뜨냐는 듯 여유롭게 ‘레이디스코드의 예뻐 예뻐’에 맞춰 춤을 추었고 나의 학업 성적과 국제 대회에서 수상했던 경험, 내 명의로 출원한 특허들을 설명해 드리고 무대를 마쳤다. 그때, 한전KPS 사장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던지시 던지셨다.

“미루 학생은 해외 업무도 잘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말했다.

“국제대회에서 해외친구들과 7박 8일간 보낸 경험을 통해 해외 업무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국제 문화를 수용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의 넘치는 자신감과 당당함을 알아보신 듯, 면접관 3분께서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셨다. 12명의 순서가 끝나고 2차 진출자를 발표하는 시간이 다

가왔다. 나는 간절히 최종 3인에 내가 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고 중간에 나의 이름이 불린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이를 뒤, 우리는 2차 직무능력평가를 위해 서인천 화력발전본부에 방문하였다. 우선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촬영 앞서서 교육을 진행하셨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는 증기터빈에서 멈추게 되었고 돌발 미션을 받았다.

미션은 증기터빈의 베어링에서 진동과 변위를 측정하고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다. 예고 없이 닥치긴 했지만 앞서 받았던 교육을 떠올리고 침착하게 수행하려 했다.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당황한 나머지 목에 걸고 측정기를 다뤄야 하는데 바닥에 내려놓고 측정을 시도했다. 어처구니없는 실수였고 올바른 측정값도 얻지 못했다. 돌발미션이 끝난 직후에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의기소침한 상태였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대로 놓칠 수는 없었다. 나에게서는 아직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남아있었다. 평가 내용은 ‘고압 차단기’에서 고장 난 부분을 찾아 수리하고, 권선 저항과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내 눈 앞에는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고압용 진공차단기와 절연 저항 측정을 위한 메거, 전문가용 테스터기, 그리고 수리용 도구들이 가방 안에 담겨 있었다. 과장님께서 ‘시작!’이라고 외치시는 순간, 나는 가방을 열어 차단기의 커버를 열 수 있는 도구를 찾았고 차례차례 해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실수들도 있었지만, 도면을 보면서 침착하게 문제를 찾아 나갔다. 30분간 수리를 끝내고 커버를 닫은 후 곧바로 측정을 시작했다. 수리 전에는 측정되지 않았던 저항값이 수리 후에는 올바른 값으로 측정이 잘 되었다.

“알맞게 수리했고 정확한 값을 측정했어.”

과장님의 말씀에 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쾌감이 넘쳤다. 돌발미션 후 풀죽어있던 마음은 어느새 잊어버린 후였다.

최후의 1인을 발표하는 순간은 내 19년 인생 중 심장이 가장 뛰어나는 순간이었다. 우리 앞에 놓인 3개의 상자 중 한 상자 안에만 영광의 사원증이 들어있을 것이었고 나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나의 기대는 잠깐, 사원증은 내 상자가 아닌 다른 지원자의 상자 안에 들어 있었다. 긴장의 단계를 거쳐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전혀 아쉬움은 없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있을 때, 갑자기 사장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꾼 말씀을 하셨다.

“세 학생 모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순간 힘들었던 3년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갔고 내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 날은 모두가 울보가 된 날이었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목표를 이루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한 줄기의 희망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취업의 길을 당당히 걸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다.



꿀찌, 용이 되어 나르샤



지극히 평범한 여중생이었던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무엇을 하고 싶은지, 배우고 싶은지 몰라서 의욕 없고 무료하기만 한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막연히 집 근처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할까 생각했습니다.

‘교복과 교정이 예쁜 고등학교를 갈까?’

‘친구들이 많이 가는 일반 고등학교나 환경이 좋다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가겠지, 뭐.’

제 적성이나 흥미조차 깊게 고려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어머니께서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가 TV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한번 시청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학교명 자체도 생소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16년 동안 생각해왔던 학교생활과는 정말 다른 학교의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만 얼핏 들어보던 금융, 무역, 회계를 배우고 취업을 위해 친구들과 면접연습을 하는 모습이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입학 설명회까지 참석했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학교에 가기 위한 고

등학교를 가야 하나?’

무엇보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경제를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표가 없었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서울여상에 입학하기에는 내신 성적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낮은 감이 있었지만, 정신 차리고 눈으로만 공부하던 예전과는 달리 목청껏 소리 내는 등 공부 방법을 바꿔가며 성적을 30%가량 향상시켜 결국 특별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선택이 꿈을 찾고 이루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느끼며 스스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최하위권에서 최상위권이 되다

가고 싶은 학교가 생겼던 때에 생겼던 의지가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알차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일 것입니다. 사춘기라 불만이 많던 중학생 때와는 달리 제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무한긍정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목표가 없어서 의욕까지 없던 저는 큰 꿈을 가졌습니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학교생활에 열정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학교 때보다 한 시간 일찍 일어나야 했고 세 시간 늦게 하교하는 고등학교 생활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과 열정은 생활패턴, 성향 등 저에게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신입생 252명 중 247등으로 입학했기 때문에 성적은 반에만 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왕 배우는 생소한 전문 과목들을 아예 머릿속에 넣어버리자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것은 바로 선생님들께 여쭙보고, 교과서를 소리 내어 읽으며 ‘저만의 교

과서'를 프린트해서 등하교시간에 틈틈이 읽으며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첫 시험에서 전교 2등이라는 상상하지도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정보다 즐겁고 결과도 좋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더욱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의 경우, 매년 계획표를 식탁 옆에 붙여놓으며 식사 때마다 스스로 각인시키고 서슴없이 도전했습니다.

방과후 수업, 인터넷강의, 독학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면서 목표로 했던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여 저만의 경쟁력을 쌓기에도 힘썼습니다. 파고들면 계속 배울게 나오는 금융과 외국어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아 좋아했던 무역에 평소 흥미가 있던 회계 분야의 자격증까지 골고루 취득했습니다.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 들어간 토익반 동아리에서는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지난 때부터 하루에 100개의 영어 단어를 외워야 했습니다.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벅했는데 매일 단어를 외우고 선배들 앞에서 시험 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다른 친구들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자연스레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없어서 선후배와의 관계를 접할 기회가 없던 저는 동아리 활동 덕분에 사소한 것도 질문할 수 있는 선배, 동고동락할 동기, 제가 느낀 것을 전해줄 후배까지 생겼습니다. 저녁 7시에 동아리 활동이 끝나면 맛있는 것을 먹으며 피곤함을 풀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여름방학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함께 영어전문교실에서 TOEIC을 비롯한 영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자 준비해서 받은 점수보다 훨씬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이는 다른 동아리 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함께 하면 배가 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느낀 것입니다. 소극적이었던 성격을 바꾸고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대회에 참가하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좋아하는 영어로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는 영어 말하기대회, 팝송 대회를 비롯하여 특성화 경진대회,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특히, 영어 말하기대회에서 전교생과 선생님들에게 가족들과 즐기던 등산을 추천하고 매일 빠근한 몸을 풀기 위해 하는 요가 동작을 설명한 기억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하는 모습에 몽클함을 느낀 것은 물론이고 덤으로 ‘요가소녀’, ‘건강함의 대명사’라는 별명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에는 어떠한 행사에도 참가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부끄러워했는데, 스스로 마음가짐을 바꾸어서 얻은 결과들을 보며 ‘하면 된다’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사이버대학교를 통해서 공부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어머니를 닮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들과 철없고 금융의 ‘금’자도 모르는 많은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신 선생님 덕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3년 내내 학급 환경계장을 자발적으로 맡아서 아침 일찍 등교해 교실을 청소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한발 먼저 찾아 바로 인쇄실에 문의했습니다. 사소한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워낙 청소도 좋아했기에 큰 직책으로 여기고 책임감을 느끼며 뿌듯하게 생활했습니다.

스펙대신 경험을 쌓다

사실 학업, 학급생활, 동아리생활, 대회참가, 이 모든 것을 잘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든 완벽하게 하려는 성향 때문에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려 애쓰고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무의식중에 부담감이 가슴 깊숙한 곳에 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학년 때에 전국상업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부담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어 말하기대회, 취업 포트폴리오발표, 정기고사까지 겹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만,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후에 5월부터 예선인 서울시 상업경진대회부터 시작하여 9월에 있는 전국상업경진대회까지 5개월 동안 수백 개의 경제용어를 외우고 2년 치 경제신문을 읽는 것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교실이 아닌 도서관에서 선배 두 명과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반 친구들이 그리운 날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친구들이 써준 메모지를 하나하나 책상에 붙이면서 힘을 냈고, 머리에 다 넣자는 생각으로 정기고사를 본 것처럼 이왕 도전했으니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족한 경제상식을 머리에 채우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버텼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저에게는 얻은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고, 관심이 있었던 매경TEST를 치를 기본 상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동아리가 아니었기에 못 만날 뻔했던 친절한 선배 두 명과 아직도 연락하며 만나서 회사와 사회생활에 관해서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팀 선배들과 담당 선생님과 1박 2일로 순천을 여행한 경험

은 다시는 겪을 수 없는 값진 추억이 되었습니다.

입학한 지 한 달 후에 산업체 현장체험학습으로 금융감독원을 방문했을 때, 건물 안에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와, 진짜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감탄을 하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금융회사도 이윤창출로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모든 금융회사를 감독해서 우리나라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저에게는 더욱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1학년 때 참가한 꿈 발표대회에서 제 삶의 최종 꿈을 전교생과 선생님 앞에서 당당하게 밝히고 이것을 제 플래너에 적어놓았습니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원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적는 습관이 가장 큰 자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여상에서 금융, 무역, 회계 어느 하나 빼놓지 않고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공부할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융이 가장 재미있었기 때문에 금융정보과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홈페이지, 공식블로그, 페이스북을 틈틈이 보며 1학년 때부터 입사하고 싶던 금융감독원 채용공고를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3학년이 되어서 마침내 채용공고가 떴을 때, 같이 저녁을 먹던 친구와 손뼉 치며 마치 최종합격인 사람처럼 기뻐했습니다.

계류 기간이 3개월 정도로 긴 편이었지만, 지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오히려 행복을 느끼면서 한 단계씩 준비했습니다. 미리 자기소개서 양식을 찾아 작성해본 경험이 서류전형을 준비하는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필기시험을 위해서는 배웠던 전문 과목을 다시 복습하고 경제신문을

정독했습니다. 경제 신문 읽기 등 전국상업경진대회로 얻은 좋은 습관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차에 걸친 면접은 3학년 초부터 아침 조회시간 전에 짝과 함께 연습해왔던 시간들과 방과 후에도 남아서 연습을 도와준 친구들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마조마하며 최종합격여부가 나오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합격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마음에서 큰 웅어리가 빠져나간 듯이 기분이 정말 후련해졌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저를 일원으로 받아준 금융감독원에 감사했고, 이런 기회를 얻게 해준 서울여상에 감사했고, 서울여상 선택을 지지해준 가족에게도 감사했습니다.

꿈은 크게, 그리고 계속 꾸는 것이다

매번 입학설명회마다 홍보 담당선생님께서 저를 꼴찌로 입학해 성공한 학생이라며, 의지가 대단하다고 말씀해주십니다. 저는 그러한 말을 들으면 다소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중학생이라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품고 원하는 것에 도전할 자신감을 가진다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제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대장이 된 지금은 입학설명회와 진로박람회에서 여러 학부모님, 학생들을 상담해주며 정말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꿈’이라는 것이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학교의 문을 닫고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최하위권의 성적으로 입학한 저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크게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 꿈이 깨져도 깨진 조각마저 크기 때문이다.”

저는 과분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꿈을 꾸었고, 결국 수많은 변화에 도전하며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최종합격한 것에 그치지 않고 1학년 때 꿈꿨던 일들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더불어 모교에 방문하여 후배들에게 값진 인생이야기를 해주시는 선배님들처럼 또다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이 되자.’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며, 혹시나 진로를 찾지 못해서 많은 친구들이 가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이 일방통행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너희들도 그래! 누구에게 휩쓸리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꿈을 꾸고, 계속 되새기고, 작은 꿈부터 도전하다보면 어느 샌가 큰 꿈까지 이뤄냈을 거야.”



나를 바꿔가는 용기



자신감 없는 아이

중학교 시절, 저의 별명입니다. 국어 시간마다 1번부터 시작되는 책 읽기 시간은 저에겐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목소리가 작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마다 친구들은 안 들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대다수였고 저는 그런 친구들의 반응에 점점 더 목소리는 개미처럼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마다 선생님의 마이크는 저의 것이 되어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어 시간에 순서대로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앞두고 별별 떠는 저의 모습을 선생님께서 보시고는 저의 발표를 그냥 넘겨주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없던 중학교 생활이 계속되던 중,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넣는 기간이 왔고 우연히 KBS 1TV에서 방영 하는 고졸 취업지원 프로젝트 '스카우트'라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자신감도 없고 소극적이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텔레비전 속에서 당당하게 발표하는 선배들의 모습은 마치 저에게 슈퍼맨보다 멋진 영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방송

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딱 한번만 이라도 남들 앞에서 내 의견, 내 꿈을 당당하게 발표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꿈을 한 번 이뤄보고 싶었기에 미술이라는 저의 소질을 살려 특성화고 디자인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바꾸는 시작점, 특성화고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 위주의 학교이다 보니 입학한 후부터 면접을 대비한 발표 수업이 많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미술 시간조차도 발표 수업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학교에 잘 못 왔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는 미술을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이 그림을 그린 이유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발표의 짜릿함을 맛보았습니다.

그 뒤로 발표에 재미를 붙여 의견을 더 힘 있게 말할 수 있는 발표력과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 대학교 워크숍에 혼자 찾아가서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교내 꿈발표 대회에 일부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거의 300명 앞에서 한 꿈 발표 대회는 저의 고등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보며 어떻게 말해야 더 전달력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하는지 깨닫고 앞으로 준비할 방향을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바꾸기 위한 노력과 용기는 학업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들 앞에 서는 자신감을 기르려고 교외에서 보조 교사 봉사 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뭐든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점차 생겼습니다.

하루는 경기도상업경진대회 선수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선생님께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과목은 쇼핑몰 디자인이었고 평소에 쇼핑몰 창업이나 웹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저였기에 바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대회 담당 선생님께서도 좋게 봐주셨는지 경진대회 선수로 출전하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경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처음엔 많이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평일에는 수업시간이 끝난 후 밤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회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는 학교가 마치 집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온종일 경진대회 연습을 하는 시간조차도 더 효율적으로 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에 일찍 나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학업 공부와 병행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배분해서 공부와 대회 연습을 하다 보니 더 집중도 잘되고 능률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시간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농담 섞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넌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결국, 이런 노력 끝에 경기도 상업정보능력경진대회 동상, 전국 대회 금상을 수상하였고 반 1등, 전교에서 가장 많은 자격증 19개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후회하더라도 도전해보고 후회하자

‘후회하더라도 도전해보고 후회하자.’

고등학교 입학 후 저의 생활신조로 여긴 말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소극적인 자세 덕에 작은 것에 도전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지만, 특성화 고등학

교에 들어온 후에는 발표대회든, 그림대회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도 우선 신청서를 내고 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이 몰려서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그걸 힘들어서 어떻게 해, 나 같으면 하나 포기한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래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단 낫지.’

몇달 전 KBS 1TV에서 방영하는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주방 소형가전을 판매하는 ‘리킵’이라는 회사의 지원공고를 냈을 때도 저의 생활신조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채용공고를 보고 영업부라는 직무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게 나아지고 있더라도 영업을 뛰는 저의 모습을 상상하니 자신감이 푹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밖에 오지 않을 기회일 텐데 ‘일단 해보고 후회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수많은 고민을 끝에 전날 밤이 되어서야 지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이 바로 작가 면접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활동과 발표대회를 준비할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의견을 자신감 있게 말해 단번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선에서는 ‘렌탈 서비스’를 기업에 제안하고 자기소개를 철저히 준비해 최종 3인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고가의 제품만을 선별해서 단기적으로 렌탈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가설을 세우고 렌탈 서비스에 대해 1차적으로 길거리 설문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나서기가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은 자신

감과 용기를 가지고 설문조사 대상인 주부들이 많은 시장, 상가 등에 들어가 양해를 구하고 진실하게 임하자 학생이 고생한다며 응해주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난 후, 렌탈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저의 가설이 들어맞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4P 전략, STP 분석을 이용해 렌탈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도 했지만,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며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카우트를 준비하면서 영업부라는 것이 ‘판매’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라인 영업, 홈쇼핑 영업 등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영업이라는 직무에 대해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도 꼭 입사해서 평소 관심 있던 쇼핑몰과 관련 있는 온라인 영업을 해 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싶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현재 저는 최종 1인으로 입사하게 되어 온라인 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전하지 않았다면 못 얻었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즐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사소한 일이지만 하고 싶었던 디자인 일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고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또 상품 관리, 발주, 배송까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언젠가는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극적이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나를 바꿔 가는 용기를 내 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저처럼 무엇이든 도전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도전을 계속하다 보면 저처럼 늦게라도 성공도 뒤따라오는 법이니깐요. 모두 도전하세요! 도전하지 않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無限挑戰

[무한도전]



어릴 적부터 어떤 것이든 몸으로 직접 경험해보는 것을 좋아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하고 싶은 것은 많았으나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예고 진학의 꿈도 있었고, 일반 인문계고의 과정을 밟는 대학진학의 꿈도 키웠다. 시계나 드라이기 같은 전자제품을 고치는 것을 좋아하고 선반밀링공장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특성화고 진학까지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입학 설명을 듣게 된다. 내가 좋아하는 전자제품이나 기계부품들을 실컷 만질 수 있다는 기대에 부모님께 상의를 했다. 나의 갑작스러운 결정에도 기술이 먼저라며 아버지는 전적으로 찬성하셨지만, 어머니는 반대를 하셨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학력에 대한 편견이 있다.”

며칠을 어머니와 말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던 중 텔레비전 뉴스에 대졸들이 취업난 때문에 졸업을 미룬다는 기사가 났다. 구미전자공고의 취업률을 보여주리며 아버지와 함께 설득한 끝에 어머니의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구미전자공고 진학을 목표로 실기 필기시험을 공부가 시작됐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기술선생님을 찾아갔고 기술 책에서 저항 트랜지스터 같은 부품을 알아야 할 것 같다고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반대까지 무릅쓰고 그렇게 들어온 고등학교는 순탄치 않았다.

井中之蛙 [정중지와]

나 혼자 전혀 모르는 아이들과 같은 방을 쓰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 그 친구들과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같은 과목을 공부하는 데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 낙담하였다. 쭈뼛쭈뼛 며칠을 보내다 무엇이랴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동아리에도 들어가 보고 친구들과 공부도 하면서 학교생활에 익숙해져 갔다. 첫 중간고사를 보았다. 중학교 때의 경우 쉬엄쉬엄해도 그런 대로 등수가 나왔으나 고등학교 올라서는 다른 친구들에 밀려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

“내가 학교를 잘못 선택했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니 하려는 의지도 생기지 않았다. 열심히 하였지만 잘되지 않은 것에 고민하다 전공과목에서만만큼은 다른 친구들보다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인문과목에는 흥미가 생기지 않았지만 처음 보는 전공은 재밌고 색달랐기 때문에 좀 더 알기 위해 선생님들에게 물어보고 학습실에서 매일 전공 책만 봤던 것 같았다. 실습 부문에서는 늘 1~2등을 했다.

나는 항상 머리보다는 직접 한 번이라도 더해보고 여러 것을 해보는 것을 좋아했다. 공부에 편중되기보다는 발명 특허반 방송부 기숙사 지방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했다.

발명 특허 동아리에서 불편한 점을 개선하는 법과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웠다. 우유팩에 흰 막이 생기는 점을 개선하여 전국녹색성장청소년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받기도 했다. 방송부에서는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행사상황에서 방송 사고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다. 기숙사지방관 활동을 통해서 점호관리를 하고 물품관리를 하며 남들보다 더 꼼꼼하고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피곤하기도 했지만 피곤하다는 마음보다는 즐겁다 재밌다는 느낌이 더 강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었다. 그렇게 1학년 마지막에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전공을 고민했다. 전자계측제어와 자동화시스템전공 두 가지 모두 다른 전공에 비해서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이점이 있다. 자동화의 경우에는 전자와 기계 제어를 배울 수 있었고, 계측의 경우에는 전자 부분 안에서 전자회로설계 부문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다.

切磋琢磨 [절차탁마]

한참을 고민하다 기계와 전자를 배울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전공을 선택했다. 전자와 기계의 상호작용은 흥미로웠다. 매일 아침 PLC 회로를 작동시켜보고, 저녁에는 동아리방에서 도면을 그리고 가공을 해보았다.

2학년 때의 목표는 한 가지보다 다양한 것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현재 나는 전자부문의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기계 부문의 승강기, 컴퓨터 응용 선반 제어부문의 생산자동화 그리고 컴퓨터 관련 2가지의 자격증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자격증에 비중을 두다 보니 자연스레

학교 공부에는 소홀해졌다. 전공은 재밌었지만, 성적 때문에 자동화시스템 전공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 식으로라도 분풀이 할 곳이 필요했다.

3학년이 되자 취업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무얼 해야 할지 몰랐다. 그렇다고 일반적인 생산직원으로 가기도 싫었다. 내가 직접 배운 것을 쓸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에 가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성적이 낮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기업들이 스펙타파를 외치며 성적의 비중이 작거나 보지 않는 스펙초월전형이 생겨났고 발전사들의 공개채용이 시작되었다.

기계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고 그 생산과정에서 전자와 제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고 에너지 기업에 흥미가 있었기에 서류를 쓰고 필기시험을 봤다. 서부/중부발전 모두 필기에서 떨어졌다. 기계로 냈음에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고 NCS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다.

이후에는 기계만 죽어라 공부를 했다. 그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남동발전에서는 필기합격을 했으나 면접에서 낙방했다.

‘포기할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 괜히 기계에 지원해서 실패하는 건가?’

후회도 많이 했다. 두 개의 기업에 매달리는 와중에 벌써 1학기가 지나가 버렸다. 이대로 멈추면 죽도 밥도 되지 못하는 상태가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악물고 남부발전의 원서를 썼다.

七顛八起 [칠전팔기]

마음이 안잡혔다. 원서를 쓰는 중에 남부발전의 부산천연가스발전 본부

를 방문했다. 처음 본 느낌은 예쁘다는 생각이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발전소의 어두침침하고 굴뚝에서 연기가 폴폴 나는 이미지와는 달랐다. 굴뚝은 화사한 하늘색이고, 잘 꾸며진 공원 같은 느낌이었다.

기숙사로 돌아와서 흥미를 느끼고 자세히 찾아보았다. 유난히 이상했다. 원재료의 값이 비싼 LNG를 50%가 넘는 비율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른 발전소의 경우 값이 싼 석탄을 활용하여 발전하는 데 반해, 비싸지만 친환경적인 LNG를 사용하는 것이 인상 깊었다.

나 또한 기숙사에서 장미 허브라는 화초를 키우고 집에서는 수조를 키우는 등 환경 쪽을 좋아해서 동기부여가 되었고, 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2주 동안 하루 4시간씩 자면서 필기 공부를 다시 죽을 듯이 했다. 잠이 올 때는 뺨도 몇 번씩 때려보고, 기숙사 계단도 오르락내리락하며 언젠가 지금을 떠올리고 웃을 생각을 하며 잠을 떨쳤다. 시험을 치고 면접에서는 그동안 왜 떨어졌는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봤다.

우선 면접 울렁증을 극복하기 위해 선생님과 함께 모의면접을 하고 친구들과 시간 날 때마다 면접연습을 했다. 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무엇보다 내가 회사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들어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무엇 때문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모르고 있었다.

회사정보를 조사하기 위해 블로그 홈페이지를 닳도록 보고 다트라는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정보까지 찾아보았다. 내가 했던 동아리 활동을 생각해 연계시키고, 순수기계와 다른 자동화 시스템만의 이점을 드러내기 위해 집중적으로 준비했다. 면접에서 진실성 있게 말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한국남부발전에 최종합격할 수 있었다. 3년 동안 즐겁기도 하고

후회도 되는 일도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마이스터고) 선택을 잘했고, 특히 자동화시스템전공이 최고의 선택이었다. 나는 천천히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만 나가면 된다는 말을 여러 번 듣고 자랐다.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다면 꼭 그에 대한 보답이 돌아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취업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회사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다. 다양한 분야에서 돌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나에게도 시련이 있었다. 하지만 유재석이 활약하는 방송처럼 어렵다고 생각해도 끝없이 〈무한도전〉 한다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옥돌을 닦고 쪼고 갈아서 빛을 내는 마음으로.



씨름꾼, 공사 직원되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수력원자력 마이스터 공채에 합격한 울산에너지고등학교 3학년 정택승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취업’이란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때 실패가 준 교훈을 얻고 저 자신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열정을 쏟아 제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살바로 배운 ‘기본’, 나의 비장의 무기 ‘열정’

저는 아버지의 권유로 저학년 때 씨름을 2년 정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체격이 작았던 저는 씨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체격의 친구가 없어 저보다 체격이 좋은 친구와 연습하여 항상 지기만 했고, 그 때문에 항상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아버지께서는 실패를 두려워 말고 될 때까지 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근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저를 이기던 친구들을 이길 수 있었으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

선을 다하는 열정을 얻었습니다.

중학교 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 방황을 했습니다. 학업에는 관심이 없고 매일 사고만 치던 저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고 늘 쓴소리만 듣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혼자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킨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쭙어 보자 돌아오는 것은 거친 손찌검이었습니다.

“택승아 이젠 정신 좀 차려! 부탁할게. 제발...”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고 지난 행동에 대해 되새김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부모님께 효도하자, 내가 우리 가정을 되살리자.’

여태껏 방황을 일삼던 저는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감조차 오지 않아 무작정 엉덩이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씨름을 했을 때 미련할 정도로 연습한다는 소리를 달고 다녔던 제겐 최선의 방법이 노력이라고 생각되어 밤낮 을 가리지 않고 학업에 집중했습니다. 열정 하나 믿고 노력했던 결과 성적을 중위권까지 올렸으며 학교에서의 저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고민 하던 중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기술명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제게 도약의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기술명장에 대한 작은 관심이 꿈으로 발전했습니다. 공업계열에 대해 조사했고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전기에 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전기 분야 마이스터고등학교 중 전기에너지를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까지 배우는 울산에너지 고등학교에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제게 울산은 턱없이 먼 길이었고 부모님 곁을 떠나 타지에서 독립한다는 것이 무섭고 겁이나 선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독립은 너를 성숙하게 하는 발판이 될 거야.”

부모님은 저를 다독이며 울산에서 기술명장의 꿈을 펼쳐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응원에 힘입어 울산에너지 고등학교에 지원하게 되었고 입학성적 250점 만점에 168점이라는 낮은 점수로 ‘신재생에너지과’에 합격했습니다.

낮선 환경에서 잃어버린 자신감

고등학교 입학 후, 부모님 곁을 떠나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무척 힘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주말에 부모님 곁에서 몸과 마음의 휴식을 하지만 저는 교통비와 시간문제로 인해 집에 가지 못하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기댈 사람조차 없어 더욱 고단했던 타지생활은 너무 고달팠지만 성공에 대한 책임감으로 꺾이지 않고 학업에 열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책상을 떠나지 않았으며, 기숙사에 입사 후 새벽까지 화장실 등불에 의존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첫 시험 전날, 저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후회 없이 공부했으니 결과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스스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른 후, 60명 중 46등이라는 저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촉망은 한순간에 비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재는 공부를 그렇게까지 했는데 성적이 왜 저래? 바보 아니야?”

“불쌍하다. 이제 쪽팔려서 얼굴이나 들고 다니겠어?”

무시를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저 스스로 실망하여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고 의욕도 사라졌기에 하루하루를 의미 없게 보내며 소극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제게 힘이 되는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괜찮아 택승아. 결과가 어쨌든 선생님이 너 열심히 노력한 거 알고 있으니깐.”

선생님께서서는 실패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오는 데 실패가 주는 교훈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진짜 성공할 사람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던 중 한 번의 넘어짐으로 크게 좌절한 저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그 후 저는 제가 공부하는 시간에 비해 성적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상위권 친구들에게 공부에 대한 조언을 요청했고 자격증, 어학 시험 등 큰 시험에 응시하며 큰 시험에 응시하는 경험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집중력이 크게 부족했고 공부를 이해가 아닌 오직 암기로 했습니다. 여태껏 책상에 있는 시간이 성적과 비례할 것이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 빚어낸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시험 준비를 했고 친구들에게 받았던 무시를 매일 되새기며 제 실력을 증명할 날만 기다렸습니다. 시험 결과, 저는 상위 15%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최선을 다한 열정이 곧 제 실력이 되었다는 것에 기쁨을 느꼈습니다.

부단한 노력 끝에 저는 우리 학교에 배정받은 인원 한국수력원자력 입사 지원자 14명 안에 선발되었습니다. 학교대표로 입사경쟁을 치르는 만큼 자부심을 품고 도전했습니다. 입사전형은 1차 전형은 토익 브릿지 시험과 전

공, 회사상식, 원자력 상식 등이 포함된 인·적성 시험으로 이뤄져 있었고 2차 전형은 토론면접과 개별면접을 치른 후 최종 합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입사전형을 준비하던 중 평소 급한 성격 때문에 말이 빠르고 실수가 잦았던 저에게 인·적성시험과 면접을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적성 모의시험을 치르면 빠른 시간 내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급해져 아는 문제도 틀렸고 면접연습을 할 때는 긴장을 해서 말이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이런 단점을 고치기 위해 인·적성 시험을 준비할 때 한 문제 당 최소 15초 이상 생각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도서관에 있는 인·적성 대비 서적은 전부 대출하여 공부하며 답지로 하는 풀이가 아닌 제 방식만의 풀이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을 키웠습니다.

입사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공부에 전념하는 제 모습을 본 친구들은 너같이 미련할 정도로 공부하면 무조건 붙는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응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부족하다는 느낌은 끊이질 않았기에 몸이 상할 정도로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1차 시험 당일 저는 여태껏 갖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준비했던 만큼 인·적성 시험 및 토익브릿지 시험을 수월하게 치를 수 있었으며, 그 결과 1차 합격을 했습니다.

나의 장난꾸러기 같은 외모, 활발한 성격, 급한 말 속도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하는 인재상과는 거리가 멀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의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해 매일 1시간씩 책을 천천히 소리 내어 읽는 연습을 하였고, 면접연습을 할 때 항상 읊조렸습니다.

“나란 사람은 점잖고 조곤조곤한 사람이다.”

또한, 면접연습이 끝나고 기숙사에 입사 후 거울을 보며 표정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뉴스와 일반상식 책을 꾸준히 읽으며 사회상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넓혀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연습하였고 토론에 적극적으로 녹아들 수 있게 토론카페에 가입하여 낯선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며 경험을 늘렸습니다.

끝까지 살바를 놓치면 안돼

면접 당일 저는 긴장이 되지 않고 몸 상태도 최고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한 후 저는 토론면접을 먼저 치른 후 개별면접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토론면접장에 들어가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했으며 면접이라는 명목으로 인해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저의 수줍은 끼와 리더십을 섞어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하며 제 의견을 덧붙여 제시하였고, 재치 있는 발언으로 인해 면접관님들께서 저를 보고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토론면접이 종료된 후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학생! 유머랑 리더십도 있고 아주 잘했어!”

토론면접의 분위기를 이어가 개별면접도 치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개별면접장에 들어가 받은 첫 질문이 저를 당황 시켰습니다.

“왜 웃어?”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면접관님께서 제가 하는 모든 답변에 한숨을 쉬며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러자 저는 긴장감이 더욱 커져 페이스 조절을 하지 못해 말이 빨라졌고, 면접을 진행하던 도중 면접관님께서 제 말이 너무 빨라 면접을 진행하지 못하

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면접이 종료되기 전 저는 면접관님께 마지막 저 자신의 열정이라도 표현하고 싶어 마지막 한마디를 요청했습니다.

“면접관님, 제가 긴장한 탓에 말이 빨라져 이 자리에서 저 자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년시절을 책보다는 살바와 함께 보냈기에 학업 수준이 많이 떨어졌었고, 말썽만 피우던 철없는 학생이었지만 가정의 어려움을 말미암아 악으로 강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면접에서 면접관님들께 보여드린 제 모습은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더 열정 하나 믿고 최선을 다하는 노력파란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면접이 종료된 후 노력한 만큼 좋은 면접을 치르진 못한 것 같아 후회를 많이 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 제 강을 보여줬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합격자 발표를 본 순간 저는 최종합격을 하였습니다.

씨름꾼들이 경기를 하는 중 자신의 패배를 짐작하게 될 때가 자신의 두 손 다 상대방 살바를 완전히 놓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힘의 주도권을 뺏김과 동시에 무게중심을 잡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다 보여 어려운 상황 일지라도 분명 돌파구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큰 좌절을 하고 실패를 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이 도전한 목표에 미쳐 후회 없이 노력하세요. 설령 주위에서 어떤 쓴소리를 해도 꺾이지 마세요. 노력은 절대로 성공을 배신하지 않고 최선은 언젠간 우리를 최고로 만듭니다!



꿈으로 가는 지름길



저는 평범한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의 작은 집에서 6명이 어깨를 다닥다닥 붙인 채 잠이 들었고, 보편화된 수세식 화장실이 아닌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씻는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샤워’라는 단어가 생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는 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학창시절 동안 우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자라온 환경은 달랐지만, 대부분 친구가 꿈꾸는 좋은 고등학교, 명문대학교로의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의 선택을 믿어주세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간 이후부터 곳곳하게 지켜왔던 주관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혼자있기를 좋아했던 성격으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그 때문에 사소한 오해가 발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해의 골이 깊어져 어느새 저는 반에서 걸도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자존감은 낮아져만 갔고, 성적도 점점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진 성적을 보면서 자괴감까지 느꼈습니다.

바른길로만 걸어오던 제가 어긋난 길을 걷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입니다. 가출과 무단지각, 무단결석, 무단 조퇴까지 부모님께서 생계를 위해 일하고 계실 때 몰래 저지른 탈선들입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형편없어진 성적을 보니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의욕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스스로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공부가 안된다면 운동이라도 잘해보자는 마음에 핸드볼을 시작했습니다. 핸드볼을 하면서 자존감도 회복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 방향을 잃어버린 공부하는 습관을 되찾는 일이 전혀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방황하던 사이 갑작스럽게 진학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친구 중에 열에 아홉은 일반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낮아진 성적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성적으로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한다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어려운 가정형편에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만이 정답인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한 두 살 터울 친오빠의 대학입시 스트레스를 보며 대학교 진학만이 공부의 목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취업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 목적이 있는 공부가 하고 싶어서 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결심한 것입니다.

우려했던 대로 부모님께서도 일반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강요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아직은 특성화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허락받기 위하여 가까운 특성화고등학교인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의 취업률과 취업 우수사례들을 알려 드렸습니다.

“저렴한 학비와 기숙사비 그리고 활성화되어있는 동아리,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경력을 쌓을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노력할게요.”

저는 약속드립니다. 부모님께서도 결국 곧 제 의견을 존중해주셨고,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허락받은 이후부터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거의 도서관에서 지내다시피 하며 그간 미뤄두었던 공부들을 차근차근해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친구들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었고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고등학교 입학 후 첫 시험인 모의고사에서 반 1등이라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교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대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담임선생님들은 저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조언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금융동아리인 금융연구부로의 입단을 추천하셨고 평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금융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동아리로의 입단을 결정했습니다.

금융동아리로의 입단 이후에는 금융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였고, 상업경진대회에도 출전하여 수상하는 등 금융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워갔습

니다. 자격증 취득부터 수상까지 무언가를 성취해낼 때마다 느끼는 자부심은 그 전에 제가 느꼈던 보람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선생님, 친구, 가족, 많은 사람의 응원과 노력 끝에 얻어낸 결과였기에 의미가 남달랐었습니다.

선생님의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1학년 2학기 때는 태어나 처음으로 학급 반장 활동을 했습니다. 그간 저의 성공이 오로지 제 노력의 결과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희생과 응원을 통해 이뤄낸 결과였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저였기에 학교와 급우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의지는 더욱 굳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친구들과 선생님의 소통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동시에 학급과 친구들을 위해 봉사하며 1학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보다 더 활발하고 유쾌한 성격으로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노력해야하는 의무

막연히 금융권으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던 저는 교내에서 운영하는 취업프로그램인 취업사관 반에 들어갔습니다. 밤 9시까지 남아서 공부하며 취업을 위해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슬럼프가 찾아왔고 나태한 2학년 여름방학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제각각 자기만의 길을 찾고 있었지만 저는 뒤늦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은행, 증권사에 취업하는 것이 정말 내 적성에 맞는 것일까?’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2학년 담임선생님께서 저에게 공무원 반으로의 입단을 권유하셨습니다. 선포님 중 단 한 분도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고민했고 해낼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저를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셨던 선생님을 믿고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학급

반장 활동을 하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때 큰 보람을 느끼던 제 적성과 공무원의 길이 잘 맞다고 생각하여 더욱더 의지를 다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무원 반을 들어갔을 때는 이미 학생 수가 포화상태였습니다.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은 교내에서 5명밖에 추천을 받을 수 없었는데 공무원 반의 수는 10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공무원 반에 들어가기도 어려웠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 경쟁해야 할 친구들까지 많아서 실의에 빠졌습니다. 밤 9시까지 공부를 하는 와중에도 내가 5명 안에 들 수 있을까 불안에 떨며 공부하니 쉽게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교내에서 추천학생을 뽑는 시기가 왔습니다. 중요한 시기를 나태와 게으름으로 보냈던 저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시험을 봤습니다. 다행히도 결과는 아슬아슬한 합격이었습니다. 합격한 친구들과 그렇지 못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누군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제가 합격한 사실은 더욱더 믿기 어려웠습니다. 불합격한 친구의 눈물을 보는 순간 그 친구의 몫까지 더 열심히 하기로, 꼭 합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교내 선발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 저의 하루는 너무나도 빠르게 흘렀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내고 시간을 살 수만 있다면 사고 싶을 만큼 저를 비롯한 4명의 친구는 1분 1초를 아쉬워하며 공부했습니다. 가끔 불합격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일기장 한가득 합격이라는 두 글자를 적으며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필기시험 날짜는 어김없이 다가왔고, 열떨떨한 기분으로 필기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기숙사로 돌아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

습니다.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해서 불합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필기 합격자 발표 날 혼자 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순간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지만, 면접이라는 또 하나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대비하지도, 경험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와 선생님들께서 발 벗고 뛰해주신 덕분에 합격자들을 만나 얘기도 나눌 수 있었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며 정보를 얻었습니다. 함께 합격한 4명의 친구와 같이 모의면접도 하고, 서로 면접관이 되어주며 좋지 않은 자세와 습관들은 조언해주며 면접을 대비했습니다.

마침내 면접시험 날이 되었고, 긴장한 탓인지 열심히 준비했던 것만큼 실력이 나오지 않아 진땀을 뺐습니다. 온 힘을 다해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 같아 우울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합격자란에 제 수험번호가 있는 것을 보며 마음껏 울었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족들과 나누며 많은 축하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도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제 합격에 기뻐했지만, 누구보다 기뻐던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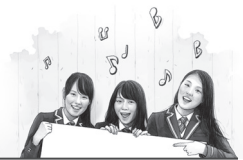
굽히지 말고 뜻을 펼치세요

저는 가끔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일반고등학교로 진학했더라면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관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요? 공무원에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진학은 저에게 공무원이라는 꿈을 갖게 해주었고, 또 그 꿈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수의 길을 걷지 않고 특별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고,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나면 더욱 강인해져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거부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묵묵하게 노력함으로써 제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고 싶은 당신에게는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 원하는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어떤 길인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력하는 당신에게는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다



2년 늦은 나이에 고등학교를 입학해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주위에 많은 격려 속에서 새로운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전 두려웠습니다.

‘자퇴하고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을까.’

‘2살 어린 친구들과 기숙사 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성적을 잘 받아서 원하는 회사나 기업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를 가슴속에 외치면서 하나씩 극복해나갔습니다.

4년 전 여느 친구들과 같이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누나 두 명이 대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 다니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퇴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거기서 이루고자 하는 절실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에게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기, 기사 자격증 취득하기, 석사학위 취득, 통장잔액 1억 만들기, 내 집 마련하기 이러한 목표들은 저를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목표부터 세우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써와!

2014년 6월 KTR(한국화학시험연구원) 연구원을 뽑는다는 특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2학년 전체가 세미나실에 모여 추천 순위를 매겨 추천을 받았습니다. 2학년 중반까지 틈틈이 준비한 전기기능사와 상위권 성적 덕분에 기뻐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잠을 줄여서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했었습니다.

1학년 국어 시간에 미리 썼던 자소서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발전소, 삼성, 공사, 대기업 취업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해 놓았던 자소서가 있기에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자소서를 썼습니다. 연구원 자격에 맞는 자소서로 약간 변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선생님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써와.”

열심히 쓴 자소서를 제출했을 때 선생님께서 반려하시면 역정도 낮지만 몇 번씩 고치면 글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다시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자기소개서’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일생동안 해온 것, 느낀 것, 배운 것을 적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춘기는 오고 성격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회사라면 우유부단한 사람보단 우직하고 일관적인 사람을 원한다고 생각했고 그걸 자소서로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그 후 몇 번의 보완과 수정 후에 비로소 잘 썼다는 칭찬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KTR(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한마디로 엄마, 기미 상궁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KTR은 공장에서 제품이 나

오면 고객이 사용하기에 앞서 제품이 안전한가, 효율은 얼마 정도인가 어떤 환경에서나 사용해도 적합한가, 이런 것 등을 시험합니다. 그것을 연구해 합격과 불합격, 등급을 매기고 마크를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중소기업기술 컨설팅과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시험과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면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곳은 내가 일할 곳이다.’

가난이 준 기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 우리 집은 어머니께서 아이 돌보시는 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직장의 중요성을 입이 닳도록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고마운 것인지 기억하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경영을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남의 집 아이를 마치 가족처럼 돌보시는 어머니의 생활신조가 제게 목표와 힘을 심어 주었습니다. 제 목표는 항상 기업의 대표가 되는 것 이전에 직장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뷔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뷔페로 향했습니다. 하루 4시간 일을 하고 나면 집으로 가서 저녁을 먹고 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지금까지 봉사상, 품행상, 모범상을 매년 받았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거나 학교에 큰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라 몸에 밴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뷔페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음식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들의 테이블에 빈 접시를 치우는 것과 물을 채워 넣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청소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 무슨 활동을 할 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습관이 들어 매년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닥에 휴지가 버려져 있으면 주워야 한다는 것은 모두 알지만, 그것을 주워서 버리려고 실행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면화되어 면접을 볼 때 그대로 면접관님들에게 비쳤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제가 연구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실에 들어가자마자 모두 그냥 앉으라고 하셔서 그냥 앉았지만 소개하기 전에 인사하고 소개를 하니 면접관님께서 질문을했습니다.

“32번 지원자는 다른 지원자랑 좀 다른 거 같아요. 왜 그런 거 같습니까?”

당시에는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자기 소개할 때 나이가 많은 것을 미리 말했기 때문에 그거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면접이 끝난 후 화장실에 가시는 면접관님을 보고 다시 질문했습니다.

“제가 왜 다른 지원자랑 다른 것 같습니까?”

제 질문에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학생은 노력하는 게 눈에 보여요.”

사람의 내면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듯이 행동 하나하나에 표출되고 잘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제 가장 큰 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늦어도 끝까지

취업하면 끝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번 겨울연수 때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따면서 얻은 저의 지식이 회사에 도움이 되기에는 극히 미약합니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컴퓨터와 토익 그리고 수학 등을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것이 저의 20대의 목표입니다.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다니면서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학생들을 위한 재직자 특별전형과 같은 후진학 제도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지원해서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캠퍼스의 낭만이나 또래문화를 즐길 수는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살의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글귀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저는 애초에 인문계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도 일반고에 진학하여 평범한 애들처럼 공부도 하고 대학교도 다니길 원해서 마지못해 가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자퇴도 생각했었지만, 선생님마다 자퇴하는 것을 만류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다닌 것이 너무 아까워 계속 다니다가 2학년이 되어서야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이 헛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과학 중점고등학교라 화학과 물리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기계와 전기에도 그대로 활용되어 다른 친구들보다 빠르

게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든 교훈을 주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24시간으로 나타낸다면 아직 이른 새벽에 불과합니다.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것이든 도전하고 그 도전이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습니다. 실패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십시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학교에 들어오기 전 저는 입학 면접에서 장래의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당당히 말했습니다.

“S전자에 입사하여 더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학교에 입학하여 성적, 동아리 활동 모두 잘해냈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S전자 입사 면접에서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법은 많이 들어봤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 뒤로 제 흥미와 적성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막무가내식 기업 지원은 탈락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발명반 선배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고 아주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세워.”

저는 다시금 제가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현대중공업을 목표로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날 휴대전화에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혹시나 잘못 온 것은 아닌지 최종 합격자 명단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불합격에 부모님이 상심하실까봐 나중에는 어디에 입사 지원을 했는지도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2년이라는 긴 자신과의 싸움 끝에 부모님께 현대중공업에 입사지원을 했고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당당히 동시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필요 없는 마이스터고

‘어렸을 때의 경험이 평생 직업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박람회나 전시회에 많이 데리고 다녀서 그런지 신기하고 독창적인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어 했고 작동원리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물건을 분해하면서 저도 언젠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물건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저와 같이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과 같이 놀면서 지금은 위험해서 상상도 못 할 일들을 무지의 패기로 시도했지요. 스프레이에 불을 붙여본다거나 여러 개의 폭죽을 뜯어서 화약만 따로 모아서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혼자서는 무서워서 해보지 못할 실험을 직접 하면서 여러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창 영재교육원이 막 생겨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에는 로봇에 관심이 생기면서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분야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일반적인 영재교육원이 아닌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만든 게임 영재교육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른 친구와 팀이 되어 직접 게임을 프로그래밍 해가며 만들어가면서 프로그래밍에 대해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료식 겸 최종 결과물 발표식에서 2위라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무중력 상태를 게임 내에서 구현한 것을 인정받아 우수한 성적으로

영재 교육원을 수료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과 전기전자 기술 분야로 진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직종에서 일하고 싶다는 명확한 결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제가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분명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때 굳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여서 진로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제가 원하는 분야의 기술들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마이스터고에 진학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직업을 결정하고자 진학한 것입니다. 제 진학 결정에 주위의 시선이 딱히 좋지는 않았습니 다. 특히나 인문계 고등학교와 비교당하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라는 편견이 많았습니다.

‘스스로 성공해서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

오히려 마음을 잡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하여 저는 기업체에서 근무 하셨던 선생님들과 그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수업을 통해서 이론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마이스터고의 장점을 뽑는다면 자신이 관심 있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자 장비나 관련 프로그램이 모두 구비된 공간에서 저는 배우고 싶은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답게 나를 다져나가는 과정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첫 번째로 잡은 목표는 제 전공 분야를 공부하며

완벽히 이해하자는 것 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이해가 안되면 끝없이 고민하였고 그래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제 실력을 점검했습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였고 2, 3학년에 들어서는 전기기사, 생산자동화, 태양광같이 타 전공의 자격증도 공부해나가며 앞으로 회사에 입사하여 빠르게 조직에 융화되기 위한 전문적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제 취미인 ‘발명으로 인정받기’였습니다. 앞으로 일을 해 나가면서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해나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직접 세상의 이목을 끌만한 물건을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발명이 취미인 친구들과 함께 특허청에서 주관하는 YIP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패턴 잠금〉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해 활동하면서 발명의 다양한 접근 방법과 결과물을 특허에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전자제품을 직접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으로는 앱 개발 동아리장과 발명동아리 부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경험을 쌓으며 ‘무전원 소리증폭기 핸드폰 케이스’로 경북 학생발명품경진대회 특상(금상)과 전국대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최근까지도 ‘IP마이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라는 아이디어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 팀원 2명을 이끌고 프로그램에 참가하였습니다. 시험기간이나 수행평가 기간에는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었지만, 진심으로 즐겼기 때문에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버텨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은 성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낮가림이 심했던 성격은 대회에 나가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저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어느새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을 만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격 또한 갖출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친구들에게 큰 웃음을 주는 분위기 메이커 이미지도 얻었습니다. 발명 아이디어를 생각 날 때 마다 노트에 적고 그 것을 바탕으로 발명대회에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으며 자연스럽게 저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키워나갔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 가는 나무 없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해왔다고 생각하였지만, 눈물 날 정도로 생각처럼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진학하기 전 목표로 삼고 있던 회사에서 떨어지자 저는 상심도 크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갈피를 잃었습니다. 그 후로는 단지 회사에 취직해야겠다는 불안감에 제가 하고 싶은 분야가 아닌 회사인데도 막무가내로 지원하고 떨어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떨어진 횟수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자 저는 이런 말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하지만 10번 찍어서도 안 넘어간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고 그동안 남들보다 많이 취득해온 자격증과 공부해온 이론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점차 반복되면서 자책보다는 저의 실수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비로소 2학년 말부터 제가 잘못했던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까지 한곳에 집중해서 10번을 찍은 것이 아니라 여러 곳

에 10번의 도끼질을 해 왔던 거야. 이미 지나간 일은 잊자.”

다시 현대중공업이라는 목표를 잡고 관련 자격증 취득과 기술 이론을 이해해 나가면서 그동안 면접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여러 번의 취업 실패에 ‘공부도 동아리 활동도 부질없는 것이었나’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공부와 상위권의 성적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학교 추천을 받아 현대중공업에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수 없이 준비한대로 면접에 응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의 긴 침묵 끝에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기술력이 곧 국력이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내 분야의 최고가 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할 신기술을 만들어 보겠어.’

이렇게 장기목표를 잡고 작은 목표를 만들어 가면서 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거대한 선박이나 중장비 안의 동력배선을 하는 나를 상상합니다. 배선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겠지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회사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자기계발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친환경 고효율 선박과 고효율 발전기관 개발에 있어 큰 보탬이 되는 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여러 번의 실패를 겪은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앞으로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나간다면 실패는 성공을 향하는 경험이자 자신을 굳세게 만들어주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믿음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한중의 흙 속에 숨은 씨앗



산업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최종 합격'이란 글자를 당당하게
확인하고 집으로 오자 산업은행으로부터 축하 꽃다발과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전효은양을 바르고 성실한 인재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은행이 더욱 훌륭한 인재로 키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축하편지에 쓰여 있던 내용입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꽃다발과 편지
를 손에 들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사실 어릴 적 제 모습은 현재의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계산기가 친구고,
회계 책이 가방에 가득한 지금과는 달리 어릴 때는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오죽하면 어린이집에서 종이접기를 하라고 준 색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버지께서 미술교재를 출판하는 작은 회사에서 근무하셨고 어머니께서
도 미술을 잘하시는 편이라 아낌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충격을 많이 받았던 저는 그림을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없
는 형편에 아버지를 졸라서 미술학원에 다녔고 하루에 열장이 넘는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로워도 그림을 그릴 때면 저만의 세상을
가진 것 같아 행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내 미술대회에서 수상을 매년 하고, 외부 대회에서
도 상을 몇 번 받자 담임선생님께 경북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미술 영재에 도
전해볼 생각이 없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날아갈 듯 기쁜 발걸음으로 달려
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자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효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제야 미납된 학원비의 독촉장과 기울다 못해 쓰러진 가세가 눈에 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신청서를 접어 버렸습니다.

꿈을 포기한 것이 생각보다 큰 상처로 남았던 건지 중학생 때까지 방황
하였습니다. 그림만 알았지 공부는 하나도 몰랐던 저는 수업을 들어도 제
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열심히 노력해봐도 겨우 60점을 받는 학생이었습
니다.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걸 깨닫고 하루하루를 친구들과 놀고 떠드는
것을 낙으로 삼았지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친구 한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년 전교 1등을 하던 저희 반 부실장이었습니다. 친구는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득달같이 달려갔고,
시험 치기 몇 주 전부터 죽어라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아이를 보았을 때 든 생각은 '부럽다'였습니다. 물론 그게 수학이란 걸
알고 금방 생각을 고쳤지만 학원비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학원에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로 부러웠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면 어떻게 될까? 공부란 걸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알파벳 ABCD도 못 쓰고, 곱셈 나눗셈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내가 100점을 받는다면 참 멋있지 않을까?’

저는 그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할지도 몰라서 그냥 무작정 서점에 들어가 영어와 수학 문제집, 과학 부교재를 샀습니다. 혼자 문제집을 풀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인터넷 강의를 보았고, 그래도 알기 어려우면 암기를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전교 6등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실로 눈물겹고 값진 성과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좌우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력하면 안 될 것은 없다!’

중학교 내신을 8%로 마무리 한 저는 집안 형편을 고려하여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왕복 2시간이나 걸리는 매우 먼 학교였지만, 언니는 대학생으로 학자금 대출이 가득한 상태였고, 아버지의 일도 잘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나 라도 어떻게든 돈이 덜 드는 학교로 가서 취업해 집안에 보탬이 되자!’

장학금을 받으며 입학하고 난 뒤 새로운 과목들을 접하며 막막하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때에 기초가 없어서 매우 힘들었던 것을 회상하며, 이번엔 정말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나가 무엇이든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로 다짐을 하였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금세 질문을 했고, 아는 것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며 공부를 했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 남아 밤늦게까지 칠판에 공식과 이론들을 써

가며 설명을 해주는 저를 보고 친구들은 나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너 진짜 선생님 같아. 설명도 정말 알기 쉽게 해줘서 고마워.”

그 말이 참 듣기 좋았습니다. 미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재능을 칭찬받은 적이 처음이기도 했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말로 기뻐합니다. 그때 이후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꿈만 가진 채 막연히 고민하던 와중 KDB산업은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입학하셨던 선배의 멘토링을 들으면서 고객과 소통하며 남을 돕는다는 것이 제 꿈과 딱 들어맞아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주려면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선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증명하는 것이 자격증이라 생각해 금융자격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취득한 금융 자격증은 ‘펀드투자상담사’였습니다. 학교 취업특별반 수업을 듣고 열심히 복습을 하였던 결과 합격 커트라인을 상회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펀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기에 차별화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방과 후를 개설해 주세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수강인원이 많지 않아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좌절했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학교에서 무료 인터넷강의를 신청하라는 말을 듣고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을 잡은 듯 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알아듣기 어려운 설명에 힘들기도 했지만 곳곳이 들

었고, 바쁘신 선생님들을 붙잡고 요청했습니다.

“제발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그 결과 83점이라는 점수를 받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2년 동안 남들이 놀 때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는 하루 30분씩 자며 공부를 한 결과 제 손엔 회계금융과 1등의 내신과 9개의 자격증이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KDB산업은행의 공개채용 공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꿈을 위하여 달려라

열심히 학교에 다닌 것이 자기소개서에서 빛을 발했는지, 서류전형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문제는 필기시험이었습니다. 때마침 NCS기반 인적성시험이 막 도입된 탓에 자료도 현저히 부족했고, 여태껏 공부했던 인적성검사 공부가 수포로 돌아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원자들도 다 나와 같은 입장일 것이고, 지금부터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로 결과가 갈릴 것이라고 생각해 열심히 필기공부에 임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고 나오면서 망친 것 같다는 속상함에 밤잠도 설쳤지만 홈페이지에서 저를 반긴 것은 필기전형 통과라는 글자였습니다. 필기를 통과하고 기쁜 마음도 컸지만, 염려스러운 마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과연 내가 면접을 잘 볼 수는 있을까? 아니 그 전에 면접관님 앞에서 말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교내 면접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소심한 성격에 많은 친구 앞에서 발표를 하다 긴장해 운 적도 있었습니다. 면접에 대한 염려가 정말 컸습

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의 응원이나, 선생님들의 격려, 그리고 집에 있는 아버지와 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무너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목이 칼칼해지도록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평소에 어두운 편이었기에 밝은 미소를 지으려 하루 종일 웃고만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임하려 노력했습니다.

먼저 입행하신 학교 선배들의 조언과 선생님들의 도움도 받아가며 노력한 결과 1차 면접 합격과 더불어 2차 면접도 합격해 KDB산업은행 최종 합격이란 글자를 당당히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줌의 흙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소심했습니다. 누군가를 이끈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어 학급 임원 경력이나 특별한 직위를 맡아 본 적도 없었고, 심지어 가족들과 노래방에 가도 노래 한 곡 부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저 같은 지질한 사람도 시도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저희들이 하나의 흙더미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란 씨앗을 품고 있는 작은 흙더미 말입니다. 씨앗은 가만히 품고 있으면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안에서 그대로 썩어버리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싹이 트면 햇빛을 쬌어주고 꾸준히 보살피 주어야 아름다운 꽃이 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슴속에 누구나 품고 있는 가능성이란 씨앗에 꾸준히 노력이란 물과 열정이란 햇빛, 그리고 자신감이란 양분까지 주어야 비로소 성공이란 꽃이 개화하는 것처럼요.

만일 피워낼 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희망을 뜻하는 샛노란 개나리를 피워내고 싶습니다. 고객들께 말간 얼굴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언제

든지 찾아오면 반갑단 듯 인사하는 KDB산업은행의 개나리 말입니다. 그러려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야겠지요. 물론 때론 비바람에 꺾여버릴 듯 흔들릴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시련을 통해 더욱더 곧고 튼튼히 가지를 뺏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 진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확실히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장담은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멈추어서면 멈추어진 그 상태 그대로 끝나버린단 건 확실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노력을 기울였지만 설사 실패하더라도 그 속의 교훈은 때론 성공보다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부디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항상 외치는 겁니다.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다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씨앗을 찾아서 마음껏 피워내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We can do it!



길을 잃을 때 어떻게 하나요?



꼭 살면서 바른길만 가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일탈도 해보고 싶고, 수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부발전에 입사하기까지 조금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길, 자퇴를 하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남들 따라 들어간 일반고의 생활은 그저 그랬습니다. 아무 목적도 이유도 없이 공부만 했고, 결국 자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남들처럼 3년 동안 공부만 하는 게 싫었습니다. 학교를 나오고 2주일 정도는 집에 박혀 놀기만 했고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 잠시 길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희망의 여신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트에 들렀다 집에 오는 길에 국비지원교육에 관한 포스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할 것도 없는데 들어볼까?”

막연한 생각으로 한국디지털전문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 첫 날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였고, 제 또래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움도 잠시 아저씨들과 형, 누나들이 말도 걸어주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친절하게 가르쳐주셨고 즐거웠습니다. 어떤 날은 수업을 들으면서 묘한 경쟁심이 생겼고,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교수님께 말씀드려 CAD 프로그램을 받아 집에서 CAD 도면을 연습했습니다. 덕분에 어떤 도면에는 이 명령어를 쓰면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지 익혔고, 도리어 형들은 제게 모르는 것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비지원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설계기술자의 꿈을 키웠고, 제 꿈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국비지원 교육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특성화고가 길을 잃어 풍전등화 같았던 나에게 든든한 등불이 되어 준 것입니다.

두 번째 길, 성장의 발판을 만들다

누구나 한 번쯤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멋진 공연을 해보고 싶어 합니다. 저도 학교에 다니면서도 항상 가슴에 이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험기간은 열심히 공부했고, 끝나면 놀았습니다.

“조금 내 생활에 변화를 줘볼까?”

시험이 끝나고 문득 생각이 들었고,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뮤지컬을 직접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 직접 신청했고, 오디션까지 보았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배우들은 대본을 받아 연습하고 공연만 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극본부터 시작해 공연, 연기까지 모두 저희 배우들 스스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열댓 명 정도가 대부분 초면이라 그런지 주제를 결정할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마인드맵을 사용하면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기 편하지 않을까 제안했고, ‘학교의 해결단’이라는 주제를 결정했습니다. 공연 역할을 배분하면서 저는 해결단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해결단의 멤버였다면 이렇게 말 했을걸?’

네, 배트맨의 조커 역할을 맡았던 히스 레저 씨처럼 언제나 저 자신이 해결단처럼 대화도하고 행동했습니다. 덕분에 처음 도전했던 연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뮤지컬은 연기뿐 아니라 노래까지 소화해야 하는 극한 직업입니다. 몸은 움직이고 표정을 신경 쓰면서 노래를 부르는 건 초심자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대사를 까먹기도 하고, 다리가 꼬여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이던 날을 제외하고, 평일에도 연습실에 찾아가서 친구들과 연습했습니다. 뮤지컬에 참여하고 3개월,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200명이 넘는 수많은 관객, 평소에 연습했을 때의 느낌과는 사뭇 달랐고 긴장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항상 연습했던 대로 실수 없이 연기하고 있던 도중, 막바지에 화내는 연기의 대사를 잊었고 2초의 정적이 생겼습니다.

“어찌지? 어찌지?”

수만 번은 되뇌다가 옷을 벗어 땅에 내던지고 나가는 애드리브로 마무리했습니다.

“애드립 진짜 잘했다.”

감탄 섞인 칭찬을 해주었고 성공적으로 공연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뮤지컬은 남들 앞에서 저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이자 성장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내생의 첫 번째 공연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길, 꿈을 찾다

학교에서 극한직업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밤낮없이 발전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곳곳이 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편한 일 재밌는 일만 찾았고,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앞으로 내 인생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적어도 구불거리고 경사도 높고 어려운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걸어온 길을 보았을 때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발전소에서 가장 필요한 자격증을 조사했고, 이후 전기기능사에 도전하였습니다. 필기 합격률만 10%대인 최악의 난이도였습니다. 더군다나 평소에 접할 수 없었던 전기기기, 전기공사 과목들 때문에 공부하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질문도 하고, 방과 후 전기수업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해서 공부한 덕분에 필기에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기를 학교에서 연습하기엔 장소가 없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원은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큰돈이 필요로 했고, 부모님께 부담을 주기 싫어서 제가 모아둔 30만 원과 남은 돈은 학교가 끝나고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벌었습니다. 모은 돈으로 학원에 다녔고 만약 떨어진

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주말을 포기해가며 실기 연습을 했습니다. 시험 당일 보통 4~6개의 배관만 나오는데 8개나 배관을 하는 도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작업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떨어진다면 앞으로 다른 어려움이 생겨도 무릎 꿇게 되겠지?”

실기 당일 도면을 보자마자 가슴 속으로 저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한 시간인 4시간 안에 끝내는 사람은 10%도 안 되었고 대부분 30분의 추가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결국, 1분을 남기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완성을 시키고 번호순대로 작동을 시켰고, 작동되었습니다. 한 달간 노력하고 스스로 자 격증을 취득했다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이 생겼고 항상 이 느낌을 가슴속에 품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발전소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네 번째 길, 포기 하지마

“이제 이론은 완벽하다. 실전에 돌입하자!”

3학년이 되고 나서 제가 목표로 하는 발전소부터 많은 기업의 공채가 나왔습니다. 물론 한 달에 두세 번은 지원했지만 합격하여 면접까지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인문계에서 공부했다면 어땠을까?”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문들을 마주하면서 나온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길을 헤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저하지 말고 걸어가세요. 우리가 꿈을 향해 걸어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길이 될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前人未踏 전인미답

선택에는 언제나 질문이 생기고, 정답과 오답이 존재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고, 어리석은 사람은 후회라는 잘못된 오답을 만든다.

제가 대한민국의 어엿한 성인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크게 굳힌 슬로건입니다.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졸업할 때까지 아니 졸업한 지금에도, 수도 없이 많이 듣는 말은 후회, 두려움, 걱정이 가득한 공통적인 선입견이 담겨있습니다.

“엄마 친구 딸은 실업계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못 갔다고 땅 치고 후회한 다더라.”

“특성화? 그런 학교 나와 봤자 고졸 취업인데 좋은데 가겠어?”

이런 선입견과 오해 그리고 대학이 목표가 아닌 학교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줄곧 따라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고졸 취업 성공사례를 보면서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희망적이지만 사실적인 저의 이야기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과 힘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성화고에서 기회를 찾다

꿈을 갖는 게 꿈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서 제가 영락유헤스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고등학교 홍보 시간에 접하게 된 특성화고 정보들 중 다른 학교들과 달리 원격의료라는 말이 저의 호기심을 자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저는 전혀 의료 또는 IT분야와 연관 있는 뚜렷한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뭐든지 Ubiquitous (언제 어디서나) 접목할 수 있다는 말이 저를 설득하였고 고민 없이 진학하였습니다.

특히 중학교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의료 IT 전문가가 목표로 정착되었고 특성화고등학교의 차별을 차이로 바꾸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처음 했던 그 '선택'이 저의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선택의 결과로 영락유헤스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저에게는 수많은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내신은 중간, 잘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뚜렷하지 않은 저는 무대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것에 대해 굉장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을 받으며 언제부턴가 제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었다는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학교홍보 활동을 비롯하여 매년 개최되는 교내 외국어 말하기 대회, 유헤스 IT 경진대회 등 활발하게 교내활동에 참가하였고 최우수상이라는 값진 성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는 약점을 감추며 회피하지 않은 덕분에 수동적인 성격으로 누구를 책임지고 돕는다는 생각도 못했던 저는 기독교 신앙으로 갖춰진 배움의 현장 속에서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장학습에 다녀온 소중한 기회를 잊지 못합니다. MRI가 주 생산품이었던 GE Healthcare Florence에서 MRI가 자재에서

제품으로 완성되는 과정과 원리를 직접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제품에 많은 노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작은 사회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쁘게 보낸 일정 속에서 혼자라면 어려웠을 일들을 90일 동안 친구들과 같이 나누며 공동체 생활을 터득하였고 하루도 밀리지 않았던 사전 찾기와 일지 쓰는 습관은 작심삼일을 밥 먹듯이 하던 제가 꾸준한 습관을 얻어 '인내'의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갖기까지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매년 두 가지 이상의 자격증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대기업 인턴ships을 비롯해 공채에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매번 '불합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초조해졌습니다. 목표가 흐려질 때쯤 어머니는 격려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넘어져도 괜찮아, 너의 도전은 세상 누구보다 당당해. 앞으로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는 내 딸이 되길 바란다.”

아직도 제가 주문처럼 외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저는 결과보다는 과정들을 통해 배운 점들이 많다고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강점을 찾아 무기를 만드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바로 돌아볼 줄 아는 힘, 자아 성찰 능력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정체되지 않기 위해선 절대적으로 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개근 하였고 시간을 관리하였습니다. 계획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대로 실행될 때에는 성취감을 느끼고 실패를 할 때면 원인을 찾으며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자기주도 학습을 통하여 매일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서 부족한 외국어와 자격증 그리고 전공공부까지 소홀하지 않게 공부하였습니다.

바이오연구소 에너지원 류지원입니다!

첫 출근 날, 제 이름처럼 바이오넷의 에너지원이 되겠다고 외친 저의 패기와 열정을 응원해주시던 모습이 기억 속에 선명한데 어느덧 입사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제가 글로벌현장학을 다녀와서 입사한 (주)바이오넷은 생체 신호를 검출하는 장비 즉, 의료기기를 생산, 공급하는 회사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비전인 중소기업입니다. 이전에 지원했던 대기업과 공기업만큼 연봉이나 조건은 높지 않았지만,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공부를 심층적으로 익힐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주)바이오넷의 주력제품으로는 심전도를 비롯하여 환자 감시장치, 태아감시장치 등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속한 MR 부서는 Modify Request의 약자로 고객 불만이나 영업의 요청으로 제품을 수정 또는 개발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게 맡겨진 업무는 연구소 개발 검증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전공지식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에서 저의 역량을 이바지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새로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 다. 그럴 때 저희 팀장님은 ‘피드백’이라는 책을 주시며 독후감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숙제를 확인하시더니 써온 독후감을 한 번 더 피드백해주시며 일하는 방식과 업무에 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때 썼던 독후감은 지금의 회사생활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들의 차이를 구별하기에 어려워하던 저를 위해 평택성모병원으로 직접 공부해볼 기회를 주셨고 응급실에서 쓰이는 장비와 네트워크 환경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입사 3개월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시켜주시는 건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저는 범접할 수 없는 책임감의 범위 앞에서 정체되고 있는 저를 돌아보며 허무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의 팀장님이 지시했습니다.

“류지원 연구원님, 제품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다음 달, 이 시간에 심전도 연구 세미나를 준비하여 발표하세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긴장을 많이 하는 저로서는 정말 캄캄한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의공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물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괴로워해서 가벼워지지 않는다면 좀 더 즐겁게 하자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신 걸까요? 당일 날, 사장님을 포함하여 임직원분들 앞에서 준비한 만큼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입사하고 첫 도전은 그렇게 성취감과 즐거움이 공존하였고 저의 두려움은 작은 인정과 함께 수고했다는 격려로 돌아왔습니다.

행복 해 질 용기

마지막으로 지금의 저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했던 그 취업으로 한 기업의 일원으로 작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무작정 준비하였을 때는 그저 연봉이 높은 회사를 우선시했지만,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회사는 연봉이 높은 회사 보다는 같은 시간을 투자하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고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 전 완벽하지 않

습니다. 회사 생활의 부족함에 대해 혼도 나면서 응원도 받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되, 제 부족함이 저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쯤 필요한 저만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다 보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일이 적성에 맞니?”

그러면 저는 아직도 새로운 것이 더 많아 모르겠다고 대답합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저에게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저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해하지 않고 하는 일에 확신이 들 때까지 온전히 배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비슷하거나 좀 더 일찍 취업한 주변 친구들을 보면 답을 일찍 내려 다른 목표가 생긴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오답이었다고 절망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좋은 회사, 편한 사회생활을 남의 기준에 비교하며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먼저 사회를 보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분별할 힘과 내면의 저를 들여다볼 기회를 가진 것에 너무나 기쁩니다. 특히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동료들이 생기고 제 자리가 있다는 소속감은 두말없는 행복입니다.

많은 생각이 오가는 지금 대학과 취업을 사이에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후배들이 저보다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진실한 눈을 가졌으면 좋겠고 언제, 어디서나 이 세상에서 제약 없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 이 나라를 넘어 세계로 펼쳐 나아가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행복해질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No pains, no gains.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기대어 용돈을 받는 것이 너무 싫었다.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났다. 돈을 벌기 위해 매번 인력사무실에 나갔다. 일을 하고 싶어 아무리 기다려도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상 퇴짜였다. 그래도 보란 듯 매일 눈을 뜨면 고양이 세수를 하고 사무실에 발을 들였다.

처음 일을 얻어 간 곳은 섬진강 수계 치수 공사 현장이었다. 덩치가 좋다는 말에 겨우 승낙을 얻어 하청업체 직원분의 차에 오르고 한 30분을 달려 도착했다. 매스컴에서 매번 봐왔던 것처럼 건설, 토목현장은 스케일이 남달랐다. 크레인부터 불도저, 로더 등 공사금액도 기계들도 거대하였다. 구경하는 것도 잠시 현장관계자께서 산업안전 재해보상 등 각종 동의서를 작성케 하시고, 현장근처에서 안전화와 안전모, 장갑을 착용했다. 슬슬 흙냄새가 느껴졌고 내 손엔 생전 처음 본 폴과 스타프라는 막대기를 쥐어 주셨다. 이리저리 무전기에 흘러나오는 음성을 따라 왔다 갔다 몇 번을 반복하였다. 현장에 계신 측량기사분께서 처음 일을 접하는 사람치고는 굉장히 능숙하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필자는 이것이 나의 진로이자 이상적인 완

벽한 삶의 꿈을 이뤄줄 거로 생각하지 못했다.

고등학교 유학은 어때요?

매번 공사현장에 아르바이트로 참여하여 나의 용돈과 생활비를 충당했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엄청난 갈림길인 인문계와 실업계를 선택해야 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공부는 못했으니 실업계를 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대신 아버지가 공고를 졸업하시고 취직하셔서 잘 살고 계시니까 이 명분으로 실업계 진학을 밀어붙일 생각이었다.

솔직히 공부는 못 했어도 주말마다 봉사활동을 틈틈이 했고 좋은 인성을 부각시킬 생각이었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만 빼면 나도 제법 괜찮은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군산기계공고에 원서접수를 하였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마이스터고를 일체 포기하고 온전히 실업계를 가기로 마음먹었다. 담임선생님께서도 집 가까운 남원용성고와 제일고를 추천해주셨으나 유학을 가보자는 마음으로 전주소재의 전주공고 토목과에 원서를 넣었다. 간단한 면접과 전국에서 규모로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에 장학금. 그리고 기숙사 생활, 좋은 조건으로 고등학교 시절이 시작되었다.

재학 중 영어와 수학, 기타 인문과목을 배우지 않고 오직 실습과 전공수업만 진행하며, 어려운 단어를 익히며 공학용 계산기로 공식을 풀며 하루하루 꾸준히 버텼다. 학교가 끝나면 전공자격증 방과 후 수업을 매일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방학에는 매일 기차를 타고 전주에 도착해 등교해 특별수업을 받았다.

처음에는 토목재료의 품질을 측정하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취득, 두 번

째로는 내가 가장 좋아하고 경험했던 것 중에 자신 있었던 측량기능사 취득, 세 번째로는 현장에서 필요한 토목 캐드를 취득하였다. 벌써 2년 동안 자격증을 세 개나 취득하였는데, 이제 의무검정(실업계, 전문계, 마이스터고 3학년생들에게 필기 면제를 해주는 검정)만 치르면 학교생활이 끝나는 듯했다.

기숙사 생활이 반복되고 기차를 밥 먹듯 타니 시간이 훌쩍 흘러 3학년 초 취업시즌이 되었다. 이때 취업 홍보를 위해 오신 대한지적공사 연수원 교수님들의 말에 나를 마음이 쏠리기 시작했다. 지적측량분야와 공간정보 사업 분야를 설명해주시면서 안내를 해주시고 여의도 본사를 학교에서 얼마 멀지 않은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었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측량을 하면서 직업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 채용준비를 시작했다.

의무검정시즌엔 박카스 2박스를 사 들고 대한지적공사 전북본부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지적기능사 실기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얻을 수 있었다. 지적공사 채용에 걸맞은 NCS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지식과 한국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겨울방학 내내 기차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였다. 같은 반 토목과 친구들과 졸업생들은 공무원, 도로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에 일찍 입사해 더욱 나를 부추겼다. 하지만 지적공사 본사 이전으로 고졸 채용을 활성화한다는 말만 믿고 나는 졸업 후에도 열심히 한우물만 봤다.

14년 4월쯤 되었을까. 드디어 지적공사에서 고졸 지적측량 기술직 채용 공고가 나왔다. 나는 바로 준비를 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는 지식을 달달달 익히고 한국사 문제를 매일같이 반복해 질리도록 한 결과 서류,

시험전형을 통과해 1차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다. 연수원에서 2번의 임원면접이 있었다. 머리가 하얗게 되고, 막상 준비했던 것을 뽐낼 수 없었다.

‘어차피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할 분들이야.’

당황하기도 했지만 내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며 임기응변으로 발표했다.

드디어 면접이 끝나고 나에게 합격의 기쁨이 찾아왔다. 긴 터널을 빠져 나와 한 줄기 빛이 내 몸을 감싸 안아 주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마냥 집에서 쉬고 있을 수 없었다. 한 달간의 합숙과 과제를 미리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연수원에 입교하고 임원진과의 만남과 예절, 기본 이해, 회사이념, 연수교육과 연수기간 중 하루무박행진, 지적측량 등 과제들을 여러 동기와 같이 체험을 하며 동기애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다.

상처 없는 훈장은 없다

연수를 수료하고 첫 발령지로 경상남도 합천군이 선정되었다. 내가 살 집을 구하고, 혼자 정식으로 사회에 첫발을 딛는 순간이었다. 합천지사에 처음 인사를 올리고 근무가 시작되었는데 너무 가슴이 벅찼다.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회사라고 느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측량과 직업 해결, 급여까지 모든 걸 충족할 수 있었다. 출근을 하면 사무실 청소를 하고, 측량장비를 점검하고, 자재관리, 커피 심부름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사회생활에 임했다. 위성 GPS측량 장비를 가지고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국민의 손과 발을 대신해 측량하였다. 아침 8시에 출근해 기본적인 업무파악을 끝내고 하루 평균 3~4건 정도 출장을 다닌다. 회사 일과 잦은 회식으로 피로가 쌓이기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의 연수 교육과 사이버 강의, 지사 자체의 직장교육을 통해 머리를 식히고 있다.

올해 22살. 지나온 일들을 떠올리면 누구도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놀 때 같이 놀고, 쉬 때 같이 쉬었더라면 지금의 회사 꼬리표가 붙기는커녕 대학이나 군대 간다는 핑계만 늘었을 거라고. 게으름을 피우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지금도 막막한 미래 때문에 맘 졸이면서 지내고 있을 것이다.

학창시절엔 잡지에 실린 고졸취업 성공기를 보면서 생각을 하고는 했다. '나도 대기업, 대기업, 공무원에 입사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잡지에 실릴 수 있을까?'

설마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 글을 쓰고 있다. 지금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실업계고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공부법이 있다. 스마트폰에 교과서를 캡처하거나 PDF 교과서 파일을 넣어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것이다. 전공 방과 후 수업은 필수고 1학년 2학년 중에 자격증 3~4개를 취득해 놓아 3학년에는 오로지 취업에만 몰두할 수 있게끔 하면 본인한테 현실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난 안 되겠지.’

‘그냥 언젠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결국 이도 저도 안 된다. 생각만 하지 말고 정말 고통을 감수하면서 노력하고 남들과는 달라야 한다. 마냥 기다리지만 말고 시간이 많은 방학 때나 시험이 끝난 기간에는 여러 종류의 일을 체험해 보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하다.

친구들이 공사, 공기업, 공무원에 합격했다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위해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다. 필자도 친구들도, 선생님들께서

도 예상하지 못한 공기업 입사자이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는 자랑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공사에 입사했다는 말을 해 주고 싶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대신해 줄 수 없으므로 나의 삶에 이로운 것을 찾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다. 그 결과 나에게 맞는 적성을 찾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지금도 꿈을 꾸는 것 같고 믿어지지 않는다. 나의 직장이 생긴 것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은 사회복지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나의 최종목표이자 기술의 꽃인 지적기술사를 향해 가려고 한다. 앞서 공사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지적산업기사를 공부하면서 틈틈이 짬을 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전국의 재학생 졸업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을.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



2011년 11월 30일, 쏟아지는 비를 뚫고 암 투병을 하고 계신 이모가 중학교 3학년인 나의 진로를 위해 밤중에 우리 집을 찾아왔다. 특성화고등학교 원서접수일이 31일이었는데 원서접수 전 마지막 날 밤이었다. 마이스터고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었고, 인문계고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나를 대학까지 지원하기에는 버겁단 것을 알고 있었기에 쉽게 지원할 수 없었다. 당연히 부모님과 이모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불리 내게 인문계를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생각이 깊었던 탓인지 마이스터고 원서접수 기간은 놓쳤고, 마지막 특성화고등학교 선택만 앞두었다. 하지만 막상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하려니 머릿속에 복잡해졌다. 그 상황에서 이모가 해주신 말씀은 내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는다.

“형욱아,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거야. 그때마다 차분하고 확실하게 판단해야 해. 이모 생각엔 집에서 너를 대학까지 지원해주는 게 힘들 것 같아. 어딜 가서라도 너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이모의 진심 어린 조언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나의 선택의 잣대가 되어 주

고 있다. 그 때 정말 열심히 해서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겠다고 다짐했다.

첫 번째 내 성공의 열쇠는 이모다. 지금은 아주 먼 곳에 계셔서 뵈 수 없지만, 항상 이모가 누워계신 곳에 찾아가 곰곰이 생각하고 중요한 일들은 이모 앞에서 결정을 내린다. 이모 허락을 받고 나서야 마음이 놓인다. 또 내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내가 고3 중요한 대회를 앞둔 때 마지막 순간에도 종이에 ‘시험’이라는 글자를 쓰면서 내 미래를 걱정해주신 소중한 분이시다. 덕분에 몸은 항상 떨어져 있지만, 이모를 생각하며 힘겨운 일도 이겨내고 있다.

평생 갚겠습니다! 나의 은사 우만택 선생님

내겐 이모님만큼 고마운 분들이 많다. 나는 경북공고에 입학 후 기능지도 담당 우만택 선생님의 추천으로 기능 영재반에서 기계설계/CAD 직종 훈련을 시작했다. 기능 영재반은 매년 열리는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전국대회를 목표로 훈련하고 있는 특수 영재반이다. 지방대회에서 1, 2, 3위에 들면 전국대회 출전하게 되고 그중 1, 2위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러 최종적으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를 위한 훈련을 하게 된다.

우만택 선생님은 3년간 나를 자식처럼 돌봐주셨다. 내가 그릇된 행동을 할 때는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셨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은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찾아가서 배울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니신 분이다. 3년간 가족처럼 아니 어쩌면 가족보다 더 자주 보며 훈련하니 텔레파시가 통할 지금은 나이를 넘어 나랑 매우 잘 통하는 소중한 분이시다.

우만택 선생님과 함께한 기능 영재반에서 난 값진 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방대회 금메달, 전국기계설계경진대회 대상, 전국대회 금메달 3

관왕. 이것들을 모두 이루었을 때 노력들이 모두 행복한 추억으로 바뀌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3년간 또 사회인이 된 지금까지도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께 항상 넘치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시간이 비는 주말에는 항상 모교에 계신 선생님을 찾아뵙는다. 주변에선 굳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꼭 가야 하느냐고 묻지만, 주말에 학교에서 고생하실 선생님을 생각하면 발길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선생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은 내 고등학교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황순철 이사님

근거 없는 커다란 꿈을 가장 든든하게 지원해 주신 분. 나의 영원한 롤모델은 바로 황순철 이사님이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철없던 훈련생 시절부터 3학년 전국기능경기대회까지 큰 도움을 주셨기에 평생 잊지 못할 감사함을 늘 느끼고 있다. 경기도에서 대구까지 그 먼 거리를 나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 매주 오셨다.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

어쩌면 무모했던 나의 꿈을 3년간 묵묵히 지원해주셨다. 더불어 기술 외에도 나에게 겸손함과 인내를 가르쳐주신 소중한 분이시다. 철없이 행동했던 시간, 한순간 방황해서 훈련을 게을리했던 날들, 꿈을 위한 마지막 문턱에서 지쳤던 날에도 어마어마한 침착함으로 나를 바로잡아주셨다.

이사님은 금메달의 꿈을 시작으로 나의 뒤를 따라 걸어오는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재단을 만들겠다는 더 큰 꿈을 꾸게 해주셨다. 1학년 때 막연히 걸고 싶었던 전국기능대회 금메달을 3학년이 되어 목에 걸었을 때도 시상식이 끝난 후 감사함에 바로 이사님에게 찾아갔다. 그때도 기쁨의 표현보

다 말없이 포옹으로 겸손의 축복을 보내주셨던 이사님을 생각하면 앞으로 내 삶을 자만과 오만이 아닌 모든 일에 겸손하며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사랑해요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항상 한결같은 사랑을 주시기에 때로는 잊을 때가 있다. 또 바쁜 일상에 자주 연락드리지 못하고 항상 걱정만 시켜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다.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지만 표현을 못하는 건 매한가지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 계단씩 올라가며 꿈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부모님이다. 직장인이 되어 혼자 타지에서 생활하니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부모님의 소중함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 항상 아침밥을 해주시고 빨래를 해주시며 학교에 가기 힘들 때면 데려다주시기도 하고, 챙겨주시는 것을 내가 혼자 해보니 알 것 같다.

내가 지쳐할 때 아마 부모님이 나보다 더 지쳤을지 모른다. 또 내가 기뻐했을 때는 부모님이 더 기뻐하셨을 것이다. 나에게 벅찰 정도로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것 같다. 요즘은 부모님을 챙겨드리려고 하면 괜찮다고 밀어내시는데 아직까지도 부모님에게 나는 어린 아이인가 보다. 바쁜 일상에 감사함을 잊어버리곤 하는데 자주 연락드리도록 해야겠다.

또한, 나에겐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5명의 중학교 친구들이 있다. 철없이 놀기만 했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서로 볼 것, 못 볼 것 모두 다 보며 한 살 한 살씩 먹어가며 성숙해졌던 것 같다. 언제부턴가 현실을 직시하며 지쳐갈 때에는 서로 이야기하며 위로하는 그

시간을 통해 삶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 훈련생 시절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훈련 후에 집에 가는 길에는 녹초가 되어버린다. 그럴 때마다 동네 앞에서 모여 나눴던 수많은 얘기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같이 나이 들면서 힘든 시기들 겪어 가겠지만, 지금의 친구들과 함께 겪어나간다면 못 이겨 낼 일들이 어디 있을까? 나의 또 다른 삶의 버팀목인 내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훈련 시절에는 고등학교 3년. 밤낮 가릴 것 없이 전국기능대회 수상을 목표로 매진했다. 목숨을 걸고 했다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했었다. 매일 자리 앞에 붙어있는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을 보며 다짐한 후 하루를 시작했다. 3년간 끊임없는 열정만을 보고 그 도와주신 많은 분 덕에 전국기능경기대회 1등 후 국제기능올림픽 선발전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 경험을 통해 누구나 인정하는 삼성전자에서 금형 설계라는 기술을 익히고 있다. 이처럼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 해준 열쇠는 내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이다. 그분들 덕에 요즘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지금까지 받은 감사함, 또 앞으로 받을 감사함 모두 잊지 않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이제 감사함을 베풀고자 한다. 고마운 분들이 나의 성공의 열쇠가 되어 주었듯 나를 롤 모델로 삼아 길을 걷는 후배들에게 나도 성공의 열쇠를 찾아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나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감사한 분들과 새롭게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바람이자 꿈이다.

제4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졸업생 부문 특별상 / 권승현



꽃씨의 반란



현재 은행에 입행하여 1년 차가 된 특성화고 출신 새내기 은행원으로서 저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신 3, 4등급은 입학원서를 작성할 당시 저의 성적이었습니다. 지원자 중에서는 제가 성적으로는 당연히 꼴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격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절실함과 간절함을 담아서 나를 내세울 수 있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포기를 모르는 근성과 끈기로 계속 도전해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뒤늦은 사춘기, 방향

고등학교 지원서를 작성할 당시에 저는 특성화고 진학을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특성화고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과 편견이 있었기에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인문계에 입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학비 부담과 대학등록금까지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어깨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았습니다.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면서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왔기 때문에 괜

히 억울한 마음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화를 내시면서 말렸습니다.

“왜 네 성적에 특성화고를 가려고 하니?”

하지만 특성화고에 진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취업에 대한 확실성과 20살에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애쓰시는 아버지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서 꼭 내가 원하는 은행에 취업하자.’

이런 생각으로 입학은 했지만 순탄하게 다 잘될 거라는 생각과 달리 고등학생이 되고 난 후 뒤늦게 사춘기가 왔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저녁까지 놀고 싶은데 아버지께서는 일찍 들어오라며 엄하게 구속하셨고 저는 무슨 심보인지 반항심이 생기면서 마찰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싫었습니다. 공부도 하기 싫고 자격증 시험도 불합격되면서 1학년 말부터 슬럼프를 겪게 되었습니다.

방학동안 회계금융과 친구들은 은행 텔러와 같은 금융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점점 취업에 대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미 많이 떨어져 버린 등수를 보면서 우려의 마음도 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취업을 할 수는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만 잔뜩 하면서 노력은 해보지도 않은 채 1학기마저 그냥 흘러보냈습니다.

그랬던 제가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셨던 저의 담임선생님 덕분에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철없는 행동

과 한 번씩 툭 내뱉는 말투 하나까지 세세하게 선생님은 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일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한층 성장하고 성숙해진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공부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학과마다 변별력을 주는 학교 제도에도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과를 바꿀 수도 학교를 바꿀 수도 없는데 네가 백번이고 불만을 가져서 뭐해? 차라리 현실을 쿨하게 받아들여.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봐라. 넌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했고 진심으로 응원해주시는 모습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내신 관리와 동시에 첫 금융자격증에도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학원이 아닌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점점 좋아지는 내신 성적을 보면서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올라가는 성적과 늘어나는 자격증을 보며 그래도 열심히 해왔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한 맘도 갖게 되었습니다.

전산회계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 1급, ITQ MASTER,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실패와 성공을 맛보며 노력해왔던 값진 시간들이 있었기에 쓰러져도 딛고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급 부회장을 맡게 되면서 반을 위해 노력하고 내가 먼저 친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과 친구들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게 된 것 같았고 달라진 제 모습을 보며 힘들었던 시기를 잘 견뎌낸 것이 기특하고 뿌듯했습니다.

KBS 스카우트에 도전하다

보람찬 2학기를 마치고 방학 중에 금융권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KBS 스카우트 우리은행편'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지 않았고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몰랐을 때여서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실 때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였습니다. 그래도 찾아온 기회를 놓치긴 싫었고 그 많은 은행 중에 꼭 취업하고 싶었던 우리은행이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처음이라 뭘 쓰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암담했지만 어떠한 이야기를 적어야 할지 밤을 새워가며 고민해보았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내가 살아온 과정을 되짚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항목 하나하나 열심히 기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1차 서류면접을 통과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고 그 감동을 제일 먼저 아버지께 전해 드렸습니다. 전화기너머 들려오는 밝은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 멀어져 있던 아버지와의 사이가 좁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 좋다 싫다 내색을 잘 하지 않는 아버지께서 잘했다고 칭찬해주시니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 촬영 일정 때문에 합격 통보 후 2일 동안 면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말주변이 좋다는 소리도 듣고 또박또박 말 잘한다고 칭찬받았는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떨렸고 말을 더듬기 일쑤였습니다. 면접 당일 머릿속이 새하얀 상태에서 KTX를 탔는데 서울로 가는 그 2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면접은 생각과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

었고 생각보다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 후 감격스러운 본선 합격통보와 동시에 최종관문인 결선을 앞두고 8명이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종합격은 3인이었지만 저는 5인에 속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성공의 문턱 바로 아래에서 실패를 맞본 탓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노력해왔던 시간과 비용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은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 만큼 마음이 아렸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과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열정적으로 도와주시던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자책하고 무너져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나 겪을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 생각하며 다음에 찾아 올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재도전, 그리고 새로운 출발

3학년이 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우리은행 원서가 들어왔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1분 스피치와 다방면의 면접연습을 하며 면접 공포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서류 면접을 통과하고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노력의 결과인지, 즐기는 마음으로 면접관님들과 형식적인 면접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당당히 1차 면접 합격의 기쁨을 맛보며 최종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원면접은 그 '마지막'이라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력 발휘도 제대로 못한 거 같았습니다. 아쉬움과 허탈한 맘을 안은 채 대구로 발길을 돌려야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 진정으로

원하면 반드시 꿈은 이뤄질 거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최종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주위에서는 잘 될 거라며 응원해주셨고 아버지도 굳건하게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드디어 최종발표의 날이 왔고 결과를 보는 순간 여태껏 눌러 왔던 눈물이 북받쳐 흘러나왔습니다.

“합격입니다, 우리은행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구를 보는 순간 정말 저 자신이 기특하고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힘들고 지쳐 쓰러졌을 때 손 내밀어 주시고 덜 아프게 해주셨던 주위 모든 분들이 생각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 한 달간의 연수과정을 거쳐 영업점으로 발령을 받았고 현재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부를 남들보다 잘했던 것은 아니지만 일할 때 만큼은 신입이 아닌 10년 근무한 행원 같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십니다.

시끌시끌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애교도 부리면서 막둥이지만 지점의 분위기 메이커로서 선배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고등학교 졸업생이라고 차별하시지도 않고 딸처럼 동생처럼 생각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서 금방 적응하고 잘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들 모두가 너무 행복합니다.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정말 간절히 원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보상 받는다고 믿습니다. 모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후배들에게 힘을 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적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저길 간다고?”

말하는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번 실패를 겪었고 원

서를 쓴 성적으로도 꼴찌였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혔던 문을 다시 열어 당당히 입사에 성공했지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큼 멋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에 먼저 발 디딘 선배로서, 또 언니, 누나의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특성화고 학생들이 꿈과 희망이 성공으로 보답 받기를!!!



열정 100℃, 38전 39기로 취업문 열다.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에 근무 중인 21살 장석원이라고 합니다. 정규직 직원증을 걸기 위해 겪어왔던 에피소드들을 일반적인 수기형식이 아닌 인터뷰형식으로 구성해보았습니다. 더 실감나게 전달하고자 구어체를 넣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MC유 : 안녕하세요! 취업특강 쇼 15분의 MC유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서른여덟 번의 실패를 딛고 서른아홉 번째만의 취업의 문을 두드린 열정으로 뚝뚝 뚫은 장석원씨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장석원 : 예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 중인 21살 장석원이라고 합니다.

MC유 : 예 어서오세요. 장석원씨 반갑습니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이 힘든 이 시대에 21살에 공공기관 취업이라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석원 : (멋쩍은 미소로) 감사합니다.

MC유 : 진학이라는 길도 있었을 텐데 어떠한 계기로 고졸취업을 결심하게 되신 건가요?

장석원 : 평소 흥미가 있었던 금융과 경제에 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서 금융경제 분야 특성화고인 서울금융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2011년도부터 특성화고 고졸채용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선배들이 취업하여 즐겁게 일하는 모습과 꿈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취업에 관심을 가졌어요. 적성에 맞는지 현장을 확인해본 다음에 대학은 필요성을 느낄 때 진학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 취업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대학 다니는 친구들 보면 부럽긴 부럽습니다. 배낭여행도 가보고 싶고 그리고 CC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하하하

[chapter 1.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던 문]

MC유 : 학창시절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얼굴만 성숙한 게 아니었네요. 하!하! 농담 나는 석원씨 나이에 놀기 바빴는데 철이 정말 일찍 들었군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열정 100℃ 38전 39기로 취업문 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찾아와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정확히 어떤 실패를 의미하는 건가요?

장석원 : 다소 부끄럽지만, 한국도로공사 공채합격까지 쓴 자기소개서의 부수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서른여덟 번의 쓴맛을 본 뒤에야 올 수 있었습니다.

MC유 : 아, 그러셨군요. 저도 이 자리까지 참 어렵게 올라왔는데 어린 나이에 그런 어려움을 이겨 내셨다는 점이 대단하십니다. 사전인터뷰에 따

르면 도로공사가 첫 직장이 아니라 두 번째 직장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장석원 :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 상당히 취업을 늦게 한 편입니다. 졸업하고도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고졸취업의 경우 졸업하기 전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업이라는 목표로 1, 2학년 때 학창 시절을 열심히 보냈지만, 매번 결과는 불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1년이 지나가버리고 지쳐있을 때 우연히 한 정책금융기관의 청년인턴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놀 수 없다는 생각과 목표로 해왔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어서 지원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결과는 최종합격이었습니다.

MC유 : 그런데 왜 그만 두셨죠?

장석원 : 그렇지만 첫 직장생활의 기쁨도 잠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되지 않다 보니 인턴기간 동안에도 취업준비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번 ‘귀하의 능력은 우수하나’로 시작되는 불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자 저는 점점 지쳐가고 이런 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생각 해 6개월간의 달콤하면서도 씁쓸했던 직장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다시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가 저를 되돌아보기로 했습니다.

MC유 : 퇴사 후에는 어떻게 지냈나요?

장석원 : 퇴사 후, 집에만 있으면 나태해질 거 같은 생각에 주로 구립 도서관에 가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태까지 써왔던 자기소개서들을 다 출력하여 읽고 수정 작업을 하고 신문 스크랩을 하고 필기시험도 공부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아온 21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묵묵히

봐주셨던 부모님께서도 군대를 먼저 갔다 오는 것이 어떠하겠냐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저를 못 믿어 주는 느낌이 들어 저도 모르게 흥분해버려서 부모님과 말다툼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정말 그때는 저 자신에게 화가 나고 한심했었어요. 주변에 다른 친구들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잘 사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나보다 뒤에 있던 친구들마저 다들 평평거리며 사는데. 그런 질투와 저 자신에 대한 실망에 가득 차 있을 때 한국도로공사 신입사원 공채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chapter2. 38전 39기 끝에 취업문 열다.]

MC유 : 도로공사 공채에 사활을 걸었겠군요?

장석원 : 도로공사 공채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14년도 마지막 고졸 채용이었거든요. 모든 진심을 담아 자기소개서에 녹여 썼습니다. 그 진심이 전달되었는지 면접 전형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면접 준비에 임했습니다.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모든 콘텐츠를 훑어보고 뉴스와 사보를 읽어보기도 하고 최근 시사 문제나 이슈되고 있는 뉴스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저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1분 자기소개도 톱 건들면 나올 정도로 준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는 정도니까요.

MC유 : 면접은 어땠나요?

장석원 : 면접 전형 때는 이런 강한 의지와 2년간의 준비해온 노력을 면

정관님께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최종합격자를 확인하라는 문자메세지 한 통이 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희를 누른 결과 최종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만큼은 정말 뭐랄까 세상을 다 갖은 기분일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고 행복했습니다. 합격 후 한 달간의 연수를 마치고 전북본부 무주지사로 발령받아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MC유 : 한편의 대서사시네요. 정말 끈기와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장석원 :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뽑자면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종면접까지 가서 받는 불합격 통보의 그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좌절해 있기보다는 친구들과 만나 스트레스를 풀고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며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MC유 : 석원씨 이걸 좀 조심스럽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대졸자와 동기로 같이 입사했다고 해도 처우나 진급문제 등에서 차별이 존재할 거 같은데 이 점에 대해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장석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졸로 취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는 고민일 텐데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전 대졸 선배가 하던 일이고 승진제도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졸자와 같은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험도 있기에 딱히 차별 대우 받는다고 느끼는 점은 없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대졸자와 고졸인 제가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 제대 후에 '선취업 후진학'제도를 통해 대학 진학을 통해 저의 역량을 키워갈 것입니다.

MC유 : 아, 그렇군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도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이 있을 텐데, 이 후배들을 위해 자신만의 취업 팁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장석원 : 음, 저만의 팁이 있다면요. 팁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저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란 '차별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내신관리나 자격증 취득은 모든 친구들이 했기에 저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기에 교내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다양한 교외활동을 집중적으로 했던 거 같아요. 학생 기자 활동부터 시작해서 경제캠프 및 교육 참가, 경시대회 참가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자기소개서에 녹여 쓸 수 있었고 지금에 저에게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걸 정말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팁인데요. 꼭 경제신문 읽는 습관을 갖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필기시험과 역량면접이나 PT면접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더불어 도중에 읽다가 모르는 시사경제용어를 정리하여 노트로 만들어 놓으면 더욱 좋고요.

[chapter3. 곧 열릴 문,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MC유 : 어느덧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고졸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세요.

장석원 : 어느덧 2015년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취업의 문을 연 후배님들이 있는 반면에, 열심히 준비해왔는데도 지금도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후배님들과 졸업을 하시고 나서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분 또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 2년 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냥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항상 들은 노래가 있습니다. 인기 개그맨 유재석씨가 부른 ‘말하는 대로’인데요.

‘나 스무 살 적에 하루를 건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항상 불안하고 복잡한 마음으로 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시다보면 후반부에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라는 가사가 나와요.

정말 쓰러지지 않고 나를 믿고 묵묵히 달려가니까 가사 대로 되더라고요. 그렇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그 길을 달려가 꼭 취업의 문을 활짝 여는 기쁨을 누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C유 : 진심이 담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웬지 노래 한번 들어봐야 할 거 같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할게요. 오늘 장석원씨 모시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장석원씨의 얘기대로 여러분 모두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 성공하셔서 차기 취업특강쇼 15분의 게스트가 되실 거라 믿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흙수저 탓만 할 순 없잖아요



최근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부모님의 능력이 넉넉지 못해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자녀를 일컫는 말이다. 어쩌면 나도 그 흙수저가 아닐까?

대구의 끝자락 동구. 그곳에서도 더 깊숙이 들어가면 ‘광역시’라는 타이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느 한적한 동네에 우리 집이 있다. 시골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초막집에는 우리 가족 5명이 산다. 일용직 노동자의 삶으로 꾸준한 경제적 수입이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은 그야말로 ‘흙수저’의 삶이었다.

작은방에 2명의 동생과 함께 지내다 보니 ‘오순도순’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내 시간과 공간이 없었고, 어쩌면 하나의 핑계가 되어버린 열악한 공부 환경 때문에 중학교 성적은 바닥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당연히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를 생각했었다.

막연히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알아보던 중학교 3학년 시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그래도 즐겁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며 여러 학교의 입학안내 책자를 보던 중 내 눈을 사로잡은 학교 안내문이 있었다. 그곳은 바로 구남보건고등학교의 보건간호과였다.

특성화고에서 은수저를 찾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앓다가 자연스레 지나가 버린 감기부터 혹여나 큰 병이 있을까 두려워 건강검진 조차받기를 겁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때마침 보건간호과에 가면 ‘병원’에 취업할 수 있다는 소식에 나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그리고 이곳이 지금 나를 ‘은수저’가 되게 해 준 첫 걸음이 되었다.

대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생긴 ‘보건간호과’라서 경쟁률이 일반 실업계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커트라인이 높았는데 다행히 우연인지, 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합격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하면 학생들이 담배 피우고, 염색하고 흔히 ‘일진’같은 이미지가 강했던 시절.

‘혹여나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전부 잘못된 길로 빠진 애들만 모여 있으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잠시였다. 입학 후 내가 경험하고 느낀 고등학교생활은 전혀 달랐다. 그것은 ‘편견’일 뿐.

입학 후부터 적성검사와 함께 담임선생님의 1:1 지도로 대학진학과 취업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었다. 또 ‘일진’의 이미지는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학생들을 다방면으로 신경 쓰며 관리해주고 있었다. 실습실은 병원과 비슷한 환경으로 갖춰져 있었고 실제 병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었다. 마치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도움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잘 맞춰진 퍼즐 조각 같았다.

학업 면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와 동일하게 매일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했다. 아무래도 전문계 고등학교 특성상 전문교과들이 차지하는 시간들이 많다. 그래서 일반 인문계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 중 제외되는 부분들은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충분히 보충하도록 지도해 주었다.

전문교과와 일반교과들을 모두 배울 수 있게 교육체계가 잘 잡혀있었던 것이다. 전문교과들의 수업은 역동적으로 이루어졌다. 취업을 위해 꼭 취득해야 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위해 학교 내 실습은 물론이고 병원 내 실습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다양한 병원기관과 협력 되어 있었고, 선생님들이 실습 기간 내에 병원에 방문하였다. 현장과 교육에서의 차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들을 상세히 가르쳐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의 특성상 전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컴퓨터 관련 자격증반도 개설하여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렇게 잘 갖추어진 교육환경 덕분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진로설계를 시작으로 취업을 선택한 나는 3년간의 고교생활을 통해 필요한 자격증과 수업들을 연계하여 잘 준비할 수 있었다.

마침내 3학년이 되었을 때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말처럼 평탄하게 취업의 길로 접어들 수 있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분포된 ‘누네안과’라는 병원에서 대구지점 개업 준비를 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공지가 났다.

단기간 학원을 통해 배우고 뽑은 간호조무사들이 아닌 3년간 배운 전문

적인 학생들을 먼저 뽑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입사지원을 했고 그간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입사담당자 앞에서 내세웠다. 덕분에 나는 당연히 입사할 기회가 주어졌다.

대졸 선배와의 간극을 좁혀라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합격하고 난 뒤 병원에 입사하니 3년,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들이었다. 다른 곳에서 이미 일했던 경력자들과 함께 일을 하려니 사실 내가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다.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전문적으로 안과 관련된 일들을 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공분야 관련자들보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시 고등학교 때 배운 책들을 살펴보면 안과관련 자료들을 공부하며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최대한 활용했다. 안과기구들을 다루는 기술은 부족했지만, 누구보다 친절하게 환자들을 응대했고 전산 관련 분야는 빠르게 습득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아 준 것일까? 나에게 서울 본사에서 기술을 배울 기회가 주어졌다. 그곳에서 한 달간 전문적인 기술들을 더 배울 수 있었다. 3년간 배운 지식이 있어서 의학용어나 병원이 운영되는 환경들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습득할 수 있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완벽히 알 수는 없다. 전문적으로 배운 대학생들을 상대하기가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과 나의 차이점이 그렇게 커다란 장벽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5년.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오히려 그들보다 더 우수한 병원의 인재가 되어갔다. 매일 퇴근 후 남아서 팀장님과 교육하고 열심을 쏟으며 지내다가 어느 날 되돌아보니 병원개원 후 입사한 30명 정도의 첫 오픈 멤버들 중 팀장님과 나 단 2명만 남아있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전부 이후 채용된 자들이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이든지 다 잘할 거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 는 나에게 기계조작법이나 병원에 관해 물어본다. 내가 그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위치에 서있었다. 아무도 나를 ‘고등학교졸업자’라는 부정된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병원장님은 그런 나에게 장기근속자 우수표창장이라는 귀한 상도 주셨다.

우리 모두 금수저가 되는 그날까지!

특성화고등학교,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실업계고등학교’, ‘고졸자’라는 타이틀로 비춰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편견을 깰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곳에 다니고 있는 자신들이다. 또한 그곳을 졸업한 자신들만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연히 말할 수 있다. 내 가방끈보다 내 노력과 열정, 그리고 자신감이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었노라고. 고졸이라고 뒷걸음칠 필요 없이 당당히 맞설 때 앞서 세상을 헤쳐 나가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방끈이 길다고, 부모님의 경제적 능력이 좋다고 해서 꼭 ‘금수저’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금수저’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이제는 안다. 내가 지금 ‘금수저’는 아니지만 이제 나는 ‘흙수저’도 아니다. 그 중간쯤 어딘가 ‘은수저’이지 않을까? 특성

Part 03

미래₂향한 힘찬 출발!

제4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성인 부문





도운아, 너는 내 희망이야



10월 22일 목요일. 교직 경력 31년 차 중년의 나는 점심 후 밀려드는 식곤증으로 나른하다. 10월의 눈부신 가을 햇살이 4층 교무실 창가에 내려앉아 내 얼굴을 마주한다. 눈이 부셔 잠시 감았다 뜨는 순간 반가운 목소리가 인사를 건네온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 도운이(가명)가 마지막 졸업고사를 치르고 양말 3켤레와 함께 자신의 수줍은 마음을 담아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반가움에 녀석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 도운아! 잘 지내니? 일은 재미있고? 쌤도 많이 보고 싶었구나!”

나와 도운이의 이번 만남은 교사로서의 소명감. 그리고 학교에 첫발을 내디뎠던 그 날의 초심을 다지는 성찰의 시간이었다.

당시에 도운이는 서울공고에 입학하여 기능영재반에서 활동하였다. 손재주도 좋았지만, 매우 성실한 학생이라 수십 년간 기능지도 경험을 한 나는 한눈에 도운이가 금메달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

다면 1학년 말에 여자 친구를 만나 기능 연마에 다소 소홀했었다는 점이다.

도운아, 함께 헤쳐 나가보자

우여곡절의 겨울 방학을 보내고 2학년이 된 도운이는 4월,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문제 난이도는 순발력이 있고 영리한 도운이에게 쉬운 과제였는데, 그만 자만심으로 마무리 과정에서 실수를 해 입상하지 못하고 말았다. 대회가 끝난 뒤 도운이는 더욱 마음을 못 잡고 방황을 하였다. 마침내 도운이 엄마와의 장시간 면담으로 기능영재반을 그만두고 학급 활동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능영재반을 그만 둔 후 도운이의 방황의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결석도 많아졌으며 심지어는 담임선생님을 통해 학교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지도교사인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도운이를 붙들고 진로코치 및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설득했다. 기능영재반은 그만 두어도 학교만은 잘 다녀보자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든지 네가 3학년이 되면 기능사 자격증 2개 이상 취득하게 하고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질게.”

이렇게 서로가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틈틈이 만나 소통하자 점차 도운이의 눈망울이 또렷해졌다. 뭔가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집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긴 겨울을 잘 넘겨 이듬해 도운이는 3학년이 되었다.

나는 녀석과 수업시간 외에도 개별화 수업을 하였고, 마침내 <금속재료 기능사 자격증>이 도운이의 품에 안겨졌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한 도운이를 데리고 다시 도전을 했다.

“도운아, 전국열처리대회에 출전해보자. 한 달간 준비해서 대구에서 열리

는 <뿌리기술분야 전국열처리대회>에 참가하면 너에게 큰 경험이 될 거야.”

그렇게 대회의 날이 다가왔다. 대회 전날 대회장 앞 숙소에서 하룻밤 숙식을 같이 하면서 고졸성공시대, 선취업·후진학 제도, 일학습병행제도 등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사제의 정도 쌓아갔다.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국밥 한 그릇씩을 먹고 대회장으로 갔다. 대회장에 입장하기 전에 나는 도운이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날 때까지 대회장 문을 떠나지 못했다. 간절함이 통했던 것일까. 도운이는 당당히 대회 2등(은상)으로 <중소기업청장상>을 받았고, 부상으로 <열처리기능사 자격증>이 수여됐다.

나의 약속대로 도운이는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 상을 타면서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에 취업하는데 기술적 스펙과 좋은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여러 경험이 도운이의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즐겁고 알차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 후 우리는 사람인, 잡코리아 등에서 맞춤형 취업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도운이는 집근처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비요세카이’라는 업체에 취업이 되었다. 이 회사는 신소재를 사용하는 고급 전문 가위를 만드는 회사로써 도운이가 가지고 있는 금속재료시험기능사, 열처리기능사 자격증이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도운이가 전문기능인 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했다.

평소 도운이의 흥미와 관심이 많은 직종이라 좋고, 도운이의 성실성과 손재주와 눈썰미가 있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 좋다. 무엇보다도 일에 대한 열정이 샘솟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끼를 발산할 수 있어 더 좋다. 금상첨화라는 말이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임을 새롭게 깨달았다.

또한 기업과 제자가 ‘WIN-WIN’할 수 있기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했다.

도운아, 단디해라

아직 두 달이라는 짧은 취업 기간이지만 도운이는 올해부터 일본을 오가며 근무한다고 자랑했다. 그때 녀석의 눈에서 빛이 났다. 그래, 녀석의 역량은 어디까지일까? 녀석의 성장에 따라 회사도 발전하리라 생각이 되어진다.

“도운아, 회사는 너로 말미암아 번영할 거야! 아직도 학벌위주의 인식이 많이 존재하는 우리사회를 ‘고졸성공시대’는 도운이가 만들어 가듯 또 다른 도운이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뿌리내리는 거야!”

나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대한민국 직업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에 도취하였다. 졸업고사를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도운이에게 청탁도 했다.

“친구 한 명 정도 너희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줘.”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환히 웃었다.

도운이는 앞으로의 계획을 거침없이 나에게 쏟아냈다.

“선생님, 2-3년 본사에 근무한 후에 병역특례를 받고 싶어요. 선취업·후진학 제도를 통해 하고 싶은 열처리 분야의 공부를 더하고 일본지사에 근무하면서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CEO가 되어 아버지께서 그토록 타고 싶어 하시는 에쿠스 자동차를 사서,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의 고향을 방문할 거라며, 다부진 입술에서 영양가 있는 다짐을 다시금 풀어내었다. 또한 도운이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 기술인이 되어 후배들 앞에 ‘고졸성공시대’의 주역이 되겠다는

당찬 선언을 하였다. 마지막 인사로 나는 악수를 하고 돌아서는 도운이에
게 크게 외쳤다.

“도운아! 단디해라!”

고졸 성공시대를 향해

도운이를 보낸 뒤 나는 다시 초심을 잊지 않고 마음을 다잡아, 직업교육현장에서 10대의 우리 아이들이 성장통을 이겨 내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의 소명을 다하리라 재다짐 했다. 우리 아이들이 산업현장에 가서 꿈과 희망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산·학의 ‘WIN-WIN’이 필요하다. 이제 정말 자신 있고 뚝뚝한 ‘고졸성공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며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인식을 변화시켜 특성화고 아이들이 정말 신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성장경로를 확실히 밝혀주어야 한다. <고졸성공시대>라는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 지라도 이제는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고 전진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무엇이 도운이를 신나고 즐겁게 하는지, 특성화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일깨워준 기업체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도운이와 같은 전문기술인이 자신의 능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며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미약하나마 마중물이 되고 싶다. 내일은 도운이가 사준 새 양말을 신고 우리 아이들의 취업처 현장을 뽐내고 누비며 즐겁게 지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본다.

“내 아이 고졸성공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네가 좋아하는 일, 그 길로 가렴



간장 계장을 담그려고 꽃게를 그릇에 담고 간장을 부을 때, 어미 꽃게의 심정이 되어 쓴 안도현 시인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울컥울컥 간장이 쏟아지자, 안간힘을 다해 막다가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알들을 이런 말로 안심시킵니다.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이 시를 읽으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 한쪽이 아리면서 파스해집니다. 자식에 대한 애뜻함과 사랑은 어느 부모를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이의 교육과 진로를 위해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현재 서울영상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며 (주)YG케이플러스 정규 직원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여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KBS 한국방송의 ‘스카우트’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신기할 정도로 집중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일에는 너무나 무관심하였습니다. 그 무심

한 예로 7세 무렵 한글을 배울 때,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글은 매우 쉬워서 슬기로운 자는 한나절에 어리석은 자라해도 삼 일이면 깨우친다.’

그런데 쉽다는 한글을 제가 6개월을 정성을 다해 가르쳤지만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블록 쌓기를 한다거나 그림 그리는 것 등을 보면 오히려 또래 아이들보다 발달이 빠른 것 같은데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난독증 같은 것은 아닐까? 병원을 가보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아이들에게 엄한 남편이 아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한글을 가르쳤는데 놀랍게도 채 1시간이 되지 않아 아이가 더듬더듬 받침 없는 글자를 읽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우리 아이가 난독증도 지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관심이 없는 일에 심각할 정도로 무관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한글을 알게 되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듬더듬 동화책을 읽기 시작하더니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는 책을 읽느라 잠자는 것을 싫어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과서에는 수없이 많은 그림 낙서가 되어 있었고 글씨 또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악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썩 잘 그렸고 만들기, 조립 등 미술뿐만 아니라 노래와 악기 연주도 잘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특이한 놀이, 장난, 아이디어들로 늘 분주해 보였습니다.

기복이 심하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성적은 그래도 잘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입학 후 그 기복은 과목 간의 큰 성적차로 나타났습니다. 좋아하는 국어나 영어, 사회 같은 과목은 높은 점수를 받았

으나 수학, 한문같이 본인이 싫어하는 과목은 거의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중학생이 되면서 낙서와 독특한 생각은 더 심해졌으며 공부를 매우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부담되어 표정은 나날이 굳어 갔고 말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이의 공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공부를 잘해야만 진학이든 취업이든 문이 넓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애가 아직 목표가 없어서 그렇지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집중만 한다면 틀림없이 공부를 잘하게 될 거야.’

아이가 중3이 된 어느 날 하교 후 어두운 얼굴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를 본 남편이 본인이 좋아하는 길로 방향을 잡아 주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공부시켜려다 애 잡겠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던 저는 일단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학교를 알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인에게 묻고 인터넷사이트 검색도 하며 찾은 학교가 현재 재학 중인 서울영상고등학교입니다.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서울영상고등학교 입학설명회에 아이와 함께 갔는데 재학생들의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웃는 얼굴로 씩씩하게 인사하는 예의 바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입학설명회를 마치자 늘 어둡던 아이의 표정 또한 환해지며 이 학교에 진학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결정을 망설이던 저 또한 학교에서 보여준 비전과 아이의 바뀐 눈빛을 보고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낙서처럼 그린 그림을 완성하여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싫다고 하면서도 해놓은 공부가 그래도 도움이 되어서 제법 높은 성적커트라인을 무사히 통과해 서울영상고등학교 영상미디어 과에 합격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자 학교 성적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주변 좋은 친구들의 영향으로 예의 바르고 밝은 아이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진학을 위해 미술 관련 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나 틀에 박힌 그림을 싫어하는 아이의 성향을 아는 저는 학교교육과정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학교교육과정에 만화와 애니메이션 드로잉, 컴퓨터그래픽, 스토리 작법, 영상 음악, 편집, 연출, 녹음, 2D와 3D 애니메이션에서 Flash애니메이션, 스톱모션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아이의 진로에 필요한 다양한 계획이 있음을 확인하고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에 충실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도 동의하였고 더 알고 싶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학교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을 본인이 결정해 수강했습니다. 수강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2013년 컴퓨터 활용능력기초, 기업회계, 기초소묘 및 수채화, 모션그래픽디자인, 2014년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반(컴퓨터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자격증 취득), 모션그래픽디자인반, 2015년 사진 기능사반 등입니다. 최근까지는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재능기부로 오시는 현직 작가 선생님의 지도로 매주 토요일에 3시간씩 자서전 쓰기 지도를 받았습니다.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전공 분야의 외부 활동에도 충실했습니다. 1, 2학년 때는 주로 자신이 만든 디자인 블로그를 운영하였고 3학년 때는 페이스북 페이지(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icicuis>, 페이스북 주소 <https://www.facebook.com/designedbyyeon>)를 운영하며 의뢰를 받아

로고나 포스터를 제작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고3이 되자 취업을 하겠다는 아이와 진학을 원하는 저와 남편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디자인 공부'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하고 싶다며 취업 후 필요함을 느낄 때 진학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고등학교 진학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열심히 하고 행복해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결국은 아이의 뜻에 따라 취업하는 것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진로가 결정되자 밤잠을 줄이고 디자인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공모전 준비를 하였으며 교내 디자인 동아리인 '익스트루드'의 대표인 부장의 역할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또한 1학기 말부터는 친구들과 외주 회사인 '하즈'를 창업하여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샘 작업까지 마다하지 않고 매달린 공모전에서 여러 번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굵직한 몇 가지 상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15년 4월에 대한방직협회 주최 「2015 코튼티셔츠 디자인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박윤수 수이스타 대표(디자이너), 박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안윤경 한아인터내셔널 대표(디자이너) 등이 심사위원이었으며 「패션저널 HYOSUNG」에는 대회 개최 14년 만에 처음으로 고등학생 대상 수상자가 나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2015년 7월에는 전자신문이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후원하는 「가전제품 디자인공모전」에서 또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주최 측 내부 심사 70%+온라인 대중 투표 30%로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2015 WEBS 월드가전브랜드쇼(2015.8.7일~8.9일, 킨텍스)에 작품이 전시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두 가지 대회 모두 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는 학생, 일반인인 현직 디자이너들까지 참가한 대회에서 받은 상이라 본인뿐 아니라 부모인 저희에게도 큰 힘이 되었고, 취업 쪽 진로 결정으로 다소 불안하던 마음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카우트에서 꿈의 기업으로 직행하다

2015년 7월 서울영상고등학교로 KBS ‘스카우트’ 촬영팀이 방문하였습니다. TV를 보면서 우리 아이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1등을 해서 ‘꿈의 기업’에 입사하는 아이들의 면면이 너무 대단하여 감히 올려다보지 못할 나무로 여기고 있던 차였습니다.

밤늦게까지 학교에서 방송 출연 준비를 위해 피켓, 홍보 포스터,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하고 귀가하는 아이의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전 교생을 대상으로 예선을 치르고 1차 본선에 40명이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저희 아이가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 편히 경험 삼아 해보라고 했는데 막상 본선에 나가게 되니 슬그머니 감추어둔 욕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방송 작가로부터 급하게 가족들의 응원 동영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왔을 때 남편과 저는 꼭 뽑혔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나비넥타이를 매고 가수 하춘화씨 노래 ‘영감 왜 불러’를 개사해 다소 민망한 응원 영상을 제작해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40명 중 4명을 선발하는 최종 본선에도 진출하게 되어 마지막 촬영을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최종 본선은 YG케이플러스 본사로 가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발표 후인 2015년 7월 19일 방송을 보고 미션을 알게 되었는데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애가 언제 학교에서 저런 것까지 배워서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수행했을까?’

내심 놀랐습니다. 그 미션은 20년 전쯤의 CF를 2015년 현재 정서와 트렌드에 맞게 재해석하여 새로운 CF 한 편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로부터 촬영이 오후 3시쯤 끝난다고 들어서 오후 2시경부터 5분 간격으로 휴대폰 문자 확인을 했습니다. 아침에 아이에게는 1차 예선 때와 같은 말을 해주었으면서 정작 저는 혹시 안 되었을 때 아이가 실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포기했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붙었어요.”

8월 마지막 주부터 출근해서 이제 직장 생활 3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디자인보다는 영상 촬영이나 편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모델에이전시라 주말 촬영과 야근도 제법 자주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어?”

물어 보면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하는 게 꼭 재미있다고 할 순 없지만 할 만해요.”

저희 아이다운 솔직한 답변입니다. 저에게는 이 아이와 연년생인 형, 두 형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을 키우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아이와 형에게 안내와 조언은 이렇게 해줍니다.

“결국,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저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장난 반으

로 고등학생 때 어떤 가수가 불러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내 인생은 너의 것, 네 인생은 너의 것 엄마는 책임질 수 없어요.”

가끔 남편과 중학생 때의 아이와 지금의 아이 모습을 비교하면서 만일 그때 본인이 원하는 서울영상고등학교에 진학을 허락하지 않고 우리 뜻으로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 했나하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부모들이 저희 아이의 가는 길을 보고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문의해 올 때 자신 있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시키라고 여유 있고, 이유 있는 답변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으로 열정을 다해 가르치고 진로지도를 해주셨으며 인성지도까지 잘 해주신 서울영상고등학교 모든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장의 무기 3년간의 성공 노트



저는 3년의 시간 동안 소은이에게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노하우를 전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그 시간이 분명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비장의 무기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학년별로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합니다.

3년간의 계획표

먼저 소은이에게 1학년 때는 희망하는 취업처에 대한 정보와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지도했습니다.

첫째, 소은이가 취업하고 싶은 기업을 선택하게 하고 어떤 준비와 활동이 필요한지 스스로 홈페이지를 찾고 취업한 선배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의 조언은 소은이의 꿈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희망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을 알아보고 취득해 나가라고 일러줬습니다. 물론 필기, 실기로 이어지는 자격증 취득과정은 소은이에게 많은 실

패와 무기력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직무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은 지원자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격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지원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다양한 신문을 읽고 스크랩하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학생 중에 신문을 찾아 읽는 이는 극히 드뭅니다. 소은이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은이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다양한 신문을 읽고 그 주에 가장 이슈화 되는 문제에 대해서 스크랩하고 의견을 써 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은이가 써 내려간 대부분이 의견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시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편협한 시각들이 고쳐지고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넷째, 내신 성적에 빈틈없이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은이가 우리학교에 입학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첫 시험부터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 소은이에게 저는 내신 관리의 중요성과 자만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었고 그 이후부터 소은이는 줄곧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학년이 된 소은이에게 저는 다양한 경험과 행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라고 주문했습니다.

첫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캠프와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취업시장의 흐름과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에 필요한 스킬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난생처음 써보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면

접은 소은이에게 다가온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취업 캠프 참여는 소은이의 자존감을 높여 주었고 자신 있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둘째, 교내외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여 경험을 쌓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 요즘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을 펼쳐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소은이도 교내외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장했을 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뛰어난 능력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는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이며 자신감을 느끼게 합니다. 수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이 된 소은이에게 저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첫째, 희망하는 기업의 직무적성검사를 대비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라는 것부터 실천하게 했습니다. 올해부터 기업들이 NCS전형을 채택하면서 채용절차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소은이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NCS라는 용어조차 생소한 소은이에게 NCS채용은 너무도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은이가 알기 쉽도록 NCS 개념을 정리하고 직업기초능력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기초능력평가는 시간과의 싸움도 한몫을 하므로 시간을 재어가며 문제를 풀도록 지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시간에 문제를 못 풀뿐만 아니라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복적인 연습은 시간을 단축하면서 고득점을 만들기엔 충분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면접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고 타일렀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

생 중에 2/3이상이 면접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성장해 오면서 면접을 볼 기회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학년 때 부터 꾸준히 참가해온 취업캠프는 소은이에게 면접을 대비할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3학년이 되어서는 모의면접을 실전처럼 반복해 어떤 면접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이자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3년에 과정은 단지 ‘김소은’이 아니라 ‘준비된 인재 김소은’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이다

하지만 ‘준비된 인재 김소은’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계속된 불합격 소식은 소은이를 힘들게 했습니다. 의욕마저 상실해 버린 소은이는 나에게 다가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그만할래요!! 정말 잘해내고 싶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학생의 입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처음 느낀 감정은 안쓰러움보다는 분노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고생을 하면서 한없이 달려왔는데 너는 고작 몇 번의 실패 때문에 그만두려고 하니? 내가 너를 잘 못 봤구나!”

그 말을 남기고 나는 그 학생이 서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그 학생과 마주쳐도 나는 한마디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보게 된 한 연설가에 연설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포기한 사람들은 배신자가 아니다. 모두가 같은 무게를 견딜 수는 없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싸우다 우리보다 먼저 쓰러진 것뿐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그 연설가의 몇 마디가 나의 그동안의 행동을 꾸짖는 것만 같았습니다.

‘소은이는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그동안 불합격 소식을 접할 때마다 혼자 얼마나 두려웠을까?’

세상에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지 못한 내가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용기를 내어 소은이를 찾아가 말을 건넸습니다.

“소은아 그동안 수없이 고민해서 말했을 너에게 그리고 학생이기 이전에 너도 인간인데 불합격 소식을 접할 때마다 혼자 뒤처지는 기분, 그 기분을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알아주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말을 듣는 소은이는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은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

나는 소은이를 설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불합격한 원인을 찾고 합격 소식을 소은이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소은이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소은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의 간섭이 소은이에게 도리어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무게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흘렀고 더 지체하다가는 소은이에게도 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소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은아 혹시 조금이라도 취업에 마음이 있다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

작해 볼까?”

전화 너머로 나지막하게 소은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고맙지만 다시 그 시간 속으로 가기가 두려워요. 근데 지금 포기해버리면 분명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다시 도전해 볼래요. 또 다시 실패해도 선생님이 곁에서 든든한 지원자가 돼 주세요요.”

“그래, 네가 몇 번이고 쓰러져도 나는 그 곳에 있을 거야. 너를 지켜줄게.”

소은이와 의기투합하고 시작할 무렵 한 통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소은이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소은이가 더 이상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몇 번 실패를 하면서 혼자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염없이 우는 모습을 보았는데 또 그 싸움을 하게 내버려둘 수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다른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소은이를 믿고 격려해 주세요. 아마 여기에서 포기해 버리면 분명 언젠가 소은이가 후회할지도 몰라요. 제가 꼭 소은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짐만 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소은이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었지만, 꼭 소은이가 해내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은이와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처럼 너무 조급해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놓인 환경에 충실하면서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체에 지원한 경험은 소은이에게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원서에 공간이 많이 보였지만, 이젠 빈 공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소은이가 걸어온 과정이 지원서에 남아있었습니다.

고생한 보람은 ‘합격’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쉽 없는 노력 끝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류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서류합격이라는 기쁨도 잠시 소은이와 저는 그동안의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면접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인재상 및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고 회사가 요구하는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면접관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은이와 저는 일과시간을 제외하고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종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주말을 반납하고 면접에 몰두했습니다. 그 시간이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이 학교에 존재해야 하는 의미라는 생각에 즐겁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 당일 소은이를 데리고 저는 면접장소로 향했습니다. 면접 장소에는 이미 많은 지원자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소은이에게 볼 수 없었던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긴장하고는 있었지만 소은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더욱 긴장하게 될까 봐 연신 웃으면서 소은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소은이를 기다리는 대기실에서의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소은이가 면접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그 얼굴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은이의 밝은 얼굴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소은아 그동안 수고했다. 힘들어도 힘든 내색도 안 하고 잘 따라와 준 3년이잖아. 시간은 분명 너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 줄 거야.”

시간이 흘러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최종합격 ‘김소은’이라는 이름 석 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때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도 좋아했던 소은이 모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학교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소은이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업무를 시작했을 때 부담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생소한 법률 용어와 다양한 소송 서류는 자신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포기하고도 싶었지만, 지금의 성과가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기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업무에 필요한 법률용어와 소송 서류에 대해서 시간 날 때마다 외우고 또 외웠다고요.

“지금은 쉽게 이렇게 몇 자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견디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의 노력을 가늠하지 못해요. 지금은 그 노력으로 업무를 차질 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소은이에게 들었을 때 참 대견했습니다. 또한 나와 함께 걸어온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에서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 사원이 되고 싶다는 당찬 의지와 ‘선취업 후진학’을 통해서 중앙대학교 지식경영학부에 입학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내놓았습니다. 시간을 ‘헛되게 쓰지 않겠다’는 소은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많은 학생은 자신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학생이 같은 무게를 견딜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도전하다 누군가보다 먼저 쓰러진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누구도 실패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절실한 학생들에게 기회나 용기를 주지 않는 학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쓰러진다고 해도 학교는 항상 그 자리에 남아 여러분에 안전을 책임지고 보장하리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몇 번의 실패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겠지만, 그 실패를 벗 삼아 다시 일어선다면 반드시 성공은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김소은 학생이 특성화고를 선택하고 그 선택이 목표가 되어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준 것처럼 여러분도 특성화고에서 시작과 끝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특성화고에 입학한 것을 후회하기보다 후회를 역전의 기회로 삼아 도전을 시작한다면 반드시 그 도전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기회는 철저한 준비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생활하기 바랍니다.



나의 멋진 제자를 소개합니다



며칠 전에 졸업한 지 8년 된 제자가 찾아왔다. 일 년에 한두 번 전화 안부는 나누었는데 얼굴을 뵙고 싶다며 직접 찾아와주었다. 기계과에 입학하여 3년 담임을 하였으니 인연이다. 학교 다닐 때는 평상시 진지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고 축구를 좋아하며 체육 교사가 꿈이던 친구다. 3학년이 되어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취업해서 집안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상담을 하였다.

맞춤형 취업제도를 설명해주고 함께 금형업체를 방문하여 직무와 회사 소개를 받고 취업하기로 결정하였다. 중소기업체이지만 탄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금형분야에서는 규모가 큰 잘 갖추어진 회사였다. 3학년 1학기에 방과 후 수업과 여름방학 동안 맞춤형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2학기 때 취업을 나갔다.

처음 배정받는 부서는 기계설계 부서로 2년 정도 배우고는 가공 생산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근무환경은 사무실보다 힘들지만, 생산 현장을 정확히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하여 가공파트에서 여러 가공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배웠다.

담임 반이라 취업 처에 순회 지도를 나가서 상담도 하고 저녁도 사주고 근무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꼬박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1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이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 대우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위로를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취업을 나간 대부분의 친구들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만두고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진로변경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막연한 고민도 하였으나, 이왕 시작한 일이니 금형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자는 각오로 임했다고 한다.

2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인정받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5년 넘게 근무하니, 주문을 받아 설계하고 가공하는 전 과정을 알게 되고 회사 돌아가는 과정을 모두 배울 수 있었단다.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생기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입장이었다. 또한, 하는 일에 비해 대우가 좋지 않다는 생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같은 제자에게 회사 상사가 함께 독립해서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평상시 믿고 따르던 분이기 때문에 함께 지분투자를 하고 일을 시작했다. 거의 2년 가까이 하루에 10~14시간 일을 하면서 건네받은 돈은 하는 일에 비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회사 운영을 위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대충 둘러대고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단다. 믿고 따라온 그동안의 신뢰가 무너져 화도 나고, 사업의 비전도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고는 고민 끝에 동업을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렇게 7년 넘게 경력을 쌓고 사업 경험까지 하니 금형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경험과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지인의 소개로 면접을 보고 다른 회사로 들어간단다. 연봉은 어느 정도냐 물어보니, 3,500만 원 정도란다. 그동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경력을 쌓아온 결과이기에 뿌듯하다고, 술 한 잔 기울이며 하는 이야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지속하는 힘이 너를 성공이란 자리에 앉혀 줄 것을 믿는다.”

고맙다, 제자야. <짱! 오늘을 멋지게~> 라는 급훈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란 생각을 해본다. 고맙고 존경할 제자가 생겨 기쁘다.



힘들고 서툴지만 힘찬 발걸음으로



2012년 3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직업인 교사가 된 지도 10년이 된 해이다. 내가 좋아하는 인사말은 ‘처음=끝’이다. 처음 교단에 설 때 난 열정을 잃지 않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20대의 열정 넘치던 초임 교사의 패기와 자신감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학생들을 대할 때 나 자신에게 되묻곤 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답답할 때가 많았다.

‘내가 여기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최선일까?’

교사로서의 근원적인 고민이 마음을 짓눌렀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선배 선생님들은 교직 생활 10년이 지나면 슬럼프가 올 수가 있다며, 그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면 새로운 교직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다. 아마도 담당 업무가 학과 부장으로 바뀐 것이 그 답답함에 더욱 무게를 더한 것은 확실하였다.

꿈을 가진 명재를 만나다

그러던 중 처음 보는 신입생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그 학생은 대뜸 내게 물었다.

“선생님, 학과 관리 학생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내가 학과 부장이라 학과 관리 학생의 결정 권한이 내게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사실 당시 나는 1학년 수업이 없어 그 학생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었다. 다만 지금까지 스스로 찾아와 관리 학생을 자처한 학생은 처음이었다. 관리 학생이라고 해봐야 매월 7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이 지원의 전부였다. 그 사실을 설명해 주니 모든 것을 사전에 다 알고 지원하러 왔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지원동기를 물어보았는데 본의 아니게 그 학생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그 학생은 중학교 시절 홀어머니 슬하에서 경제적, 정신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틈만 나면 사고를 일으켜 경찰서도 여러 번 드나들었다고 했다. 당연히 성적도 좋지 않아 우리 학교의 커트라인 정도로 입학했다고 했다. 중학교 시절 학생답지 못한 이런 행동들로 홀어머니를 힘들게 하던 중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장기 입원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때 자신은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입학식 후 학과 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고 내가 했던 이야기가 가슴에 새겨져 나를 찾아 왔다고 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켰다는 것에 나는 고맙고 또 흥분했다.

상담하면서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니 내가 이야기 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말이 아이에게 힘을 주었다고 한다.

“중학교 시절의 나는 잊어라. 평생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보자고 하는 사

람은 아무도 없다. 현재가 가장 중요하고 미래가 더 중요하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에 가장 충실한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고 2015년 2월 졸업할 때 자신의 명함을 자신 있게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건네주고 졸업하자!”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너희가 처음인 것처럼 선생님도 올해 처음 학과 부장을 맡았다. 너희들이 졸업할 때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학과부장을 그만두고 싶다. 우리 같이 해보자! 할 수 있겠지?”

나의 매년 의례적으로 신입생들에게 하는 한 마디가 이 학생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다고 한다. 사실 처음 그 학생을 보았을 때 첫인상은 무척 좋지 않았다. 머리 스타일은 솔뚜쟁이를 연상하는 머리에 앞니는 부러져 있었다. 딱 봐도 문제아처럼 느껴졌다. 학생들에게 선입견을 품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일인 것을 알면서도 첫인상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첫인상과는 달리 하고자 하는 의지는 학생의 눈빛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2주일간 관리생 인턴을 시켜보았다. 비록 2주간이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본 관리생 중에 제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다. 가장 먼저 등교하여 연구실 청소 및 실습실 관리도 도맡아 하였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생님들께 물어보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갔다. 그렇게 2주 후에 학과 선생님 모두 만장일치로 관리학생으로 임명하였다. 그 학생이 바로 지금 내가 누구에게나 자랑하는 나의 제자 경북공업고등학교 학생회장 이명재이다.

명재는 그 어느 학생보다도 최선을 다해 학교생활에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 난 명재와 생활을 점점 더 할수록 이 녀석은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

었고, 다양한 학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주문하게 되었다. 창업 동아리, 학생회 간부, 학급 실장 등 내 욕심에 너무 많은 것들을 시킨 게 아닌지 걱정될 정도였다. 하지만 명재는 그 많은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며 학급 및 학교 친구들 간에 신뢰를 쌓아갔다.

당시 학과부장으로 1학년 수련회에 격려차 갔을 때, 명재가 학급 친구들과 함께 장기자랑을 선보였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수학여행 및 수련회를 다녀왔지만, 뮤지컬을 장기자랑으로 하는 학급은 처음이었고, 반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하는 정말 보기 힘든 또 그만큼 멋진 장기자랑이었다. 명재 주도의 이러한 활동들은 학교에 입소문을 타고 전파되면서 명재는 2학년 학생회 부회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2012년 12월 학생회 부회장에 입후보한 명재는 온 힘을 다했고, 다양한 이벤트로 학우들의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투표결과는 10표 차이로 낙선했다. 처음에는 매우 낙심하고 힘들어했지만, 며칠 뒤 오탁이처럼 다시 일어났다.

“선생님 제가 전교 부회장을 도와 학생회 간부로 활동할게요.”

이렇게 자처했을 때, 멘토 교사를 자처한 나로서는 안타까웠지만 내심 대견하기도 하였다.

1학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2학년이 되었다. 우연히도 2학년 때에는 내가 명재의 담임이 되었다. 명재는 개학 첫날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이 담임이 되어 정말 기분 좋고 학교생활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말에 담임인 내가 더 기분이 좋았다. 관리생을 하려고 처음 왔던 명재의 자신감과 당돌함.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친구들을 진두지휘했던 명재의

모습을 돌이켜 보며 나도 모르게 새로운 도전 의식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I can do it!

명재의 담임으로 또 명재는 학생회 간부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던 중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국제 교류학생’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급하게 접수되었다. 명재가 우연히 연구실에 들러 상담하던 중 이 내용을 알고 하루 만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실 합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 명재 말고도 우리 학급에 다른 학생 2명도 함께 지원하였다. 그런데 당당히 3명 모두 합격하여 몽골, 멕시코, 콜롬비아에 교류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그 중 명재는 콜롬비아의 교류학생으로 선발되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국가라 걱정되었지만 건강하고, 많은 친구를 사귀고 돌아왔다.

그렇게 2학년이 마무리되던 중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다. 내심 명재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길 바랐다. 내가 먼저 권유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내 마음을 명재도 알았는지 학생회장에 출마하겠다고 추천서를 부탁하였다. 더욱이 내가 맡은 학급에서 명재와 단짝 친구인 소현이와 함께 회장, 부회장으로 출마하겠다고 찾아온 것이었다. 대견한 마음에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꼭 당선되기를 바랐다.

1학년 때보다 더욱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그 결과 당당히 2014학년도 경북공업고등학교 총 학생회장에 당선되었고, 함께 한 소현이도 부회장에 당선되는 겹경사가 있었다. 주변 선생님들께 축하인사를 많이 받은 기억이 난다. 경북공업고등학교 역사 이래로 한 학급에서 학생회장, 부회장이 함께 나온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들 했다. 정말 뿌듯하

고 무엇보다 명재와 소현이를 비롯한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감사했다.

어느덧 2013학년도가 저물어 가고, 2014학년도가 밝아오고 있었다. 명재는 3학년이 되어서도 나의 말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3학년 3월이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 한전, 한국가스공사 등 다양한 취업 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명재는 여러 군데를 지원하였지만, 1차 또는 2차에서 모두 떨어졌다. 그즈음 같은 반 소현이가 ‘스카우트’한국전기안전공사 편에서 우승을 차지해 입사가 확정되었다. 항상 단짝으로 다녔던 친구였기에 명재는 소현이의 입사를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본 나는 오히려 명재보다 더 초조하고 불안했다.

어느 날 KT & G에서 영업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왔다. 나는 그 채용공고를 보고 명재에게 지원해 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건 명재에게 딱 맞는 취업자리야.”

“네, 선생님! 딱 저를 위한 기업입니다.”

명재도 확신에 차서 답변해 주었다.

자기소개서는 2학년 때 나와 미리 기초를 작성해두었기에, 명재가 그 사이 취득한 자격증, 외국어 성적 등을 조리 있게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하였다. 당시 명재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취업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명재의 합격 소식은 정말 듣고 싶었다.

중학교 시절 아무 목표 없이 방황하던 학생이 어머니의 병환을 계기로 대구 시내 그 많은 특성화고등학교 중 경북공업고등학교에 턱걸이로 입학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학생회장까지 맡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나로서는 꼭 합격시켜 그 결실을 맺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때 당시 명재만 지나가면 물어보곤 했다.

“발표났나?”

어쩌면 명재보다 내가 더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다. 1주일 뒤, 밝은 모습으로 찾아왔다.

“선생님! 저 1차 서류 합격했습니다.”

그때부터 난 명재는 최종 합격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2차 면접은 1박 2일 숙박면접이었다. 사실 명재는 단시간 면접으로는 다 파악할 수 없는 학생이라 생각했다. 길게 보고 행동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확신이 있었다.

면접 가기 전에 발표 준비는 많이 하였으나, 다른 준비는 평소의 명재를 보면 충분하다는 나의 확신이 있었기에 더 이야기하지 않았다. 발표 준비는 담뱃갑, 정관장 상자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준비하였고, 발표 방법도 여러 가지로 연습하였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재미도 있었고 명재와 많은 교감을 할 수 있었다. 면접 가는 당일 명재는 연구실로 찾아왔다.

“선생님! 모든 준비는 완벽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실망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꼭 합격해서 오겠습니다. 이번 공채는 저를 위한 직장입니다.”

자신감 있게 충청지역에서 실시하는 숙박형 면접을 보기위해 출발하였다. 나도 명재처럼 자신 있었다. 꼭 합격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를 뒤저녁 퇴근길에 명재의 전화가 걸려왔다. 힘이 쭉 빠진 목소리였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나도 순간적으로 힘이 쭉 빠졌고, 그동안 준비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갑자기 명재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이 녀석이 너무 기쁜 나머지 나에게 장난을 친 것이다. 하마터면 학생에게 욕을 할 뻔 했다.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느낌이었다. 명재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다음 날 밝은 표정으로 교문 앞에서 학생회장 활동을 하는 명재를 보고 기분 좋게 하이파이브를 했다.

“we can do it!”(우리 학교 등교 구호)

명재는 또 한 번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명재의 합격 소식은 최근 10년 차 교사로서의 무기력함과 수많은 고민을 해결해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명재의 합격 소식이 그 시점이라기보다는 명재를 만나고 명재와 함께 학교생활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 문제는 해결되었던 것 같다. 명재의 하고자 하는 의지와 교사의 학생에 대한 노력이 서로 힘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나는 고민해결 이상의 값진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더 이상의 열정은 없을 것이라 확신했던 나에게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러한 학생들에게 내가 좀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나름의 작은 목표도 생기게 되었다.

敎學相長, 행복한 교사를 꿈꾸다!!

‘스카우트’ 최종 우승과 KT & G 합격으로 내가 특성화고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명재와 소현이가 나에게 교사로 새로운 시작점을 알려 주었고, 무엇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 이후에 다른 학생들과도 함께 준비하고 노력하여 CJ, 삼성전자, 이랜드 그룹 등의 공채에 학생들이

합격하였고, 지금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기소개를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기업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취업처를 안내해 주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맞춤형 기업을 소개하여 입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특성화고 교사로서의 주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단순히 특성화고의 교사라면 선생 그 이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상당수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등 대부분 국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학생들이다.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남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게 나의 역할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명재를 보면서 교사로서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교직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학생을 위한 취업 지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개념이 정립되었다. 또한, 내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힘써야겠다는 10년차 교사의 앞으로의 멋진 교직 생활을 위한 다짐도 하게되었다.

취업을 한 학생들은 나에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학생들의 인사 말을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 학생들로부터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원대한 꿈과 계획을 세우고 선택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헤쳐 가며 결국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며, 난 오늘도 배우고 또 성장한다. 그래서 난 지금 이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의 교직 생활이 더욱 기대된다. 부디 나뿐만이 아닌 모든 선생님들과 나의 이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 속에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수기를 갈음한다.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도전 제4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수기집

발 행 2016년 2월
발 행 처 교육부
주 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 화 : 02-6222-6060, 044-203-6118~9 (공휴일, 야간)
팩 스 : 044-203-6133, 6144 (공휴일, 야간)
교정교열 강년수
인 쇄 처 승림디엔씨
전 화 : 02-2271-2581~2
팩 스 : 02-2268-2927

이 책의 내용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